AUG 1 4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The Korea Times Toronto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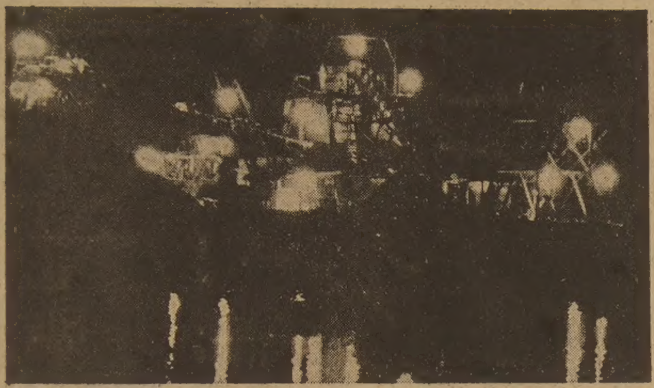
(일간) No. 557　1981년7월4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July 4. 1981

"砂金麻袋·철망 찾아라"

砂金을 캐는 한강변의 金노다지 현장은 外部人에겐 공포감을 안겨다 줬다。고막을 찌르는 소음, 언제 흉기로 변할지도 모르는 큰 돌, 그리고 모랫더미와 金노다지에 목줄을 걸고 있는 그들이 대개 주거불명자인 뜨내기

潛入 取材記

들이란 사실, 또 저마다 비밀을 감춘듯한 그들의 표정들에서 공포마저 느껴질 정도였다。「골드 러시」현장의 공포속에서 3일 밤낮을 헤매며 漢江에서 砂金을 캔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낸 潛行 取材記。



◇불야성을 이루며 야간작업중인 골재채취선들。

◇1·2차 야간취재침투경로

提報받고 3일간 밤낮헤매며 최초로 밝혀내

철망보고 "이거군"에 얼떨결 "네 砂金…"

■수많은 골재採取場

沙金을 채취하고 있는 현장인 경기도 南楊州군瓦阜面 德沼里와 八堂里 중간에 있는 雙龍洋灰 골재채취장을 첫번째로 찾은 것은 지난 18일 상오11시반께였다。사전에 八堂부근의 골재채취장에서 마대(麻袋)로 沙金을 채취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떠난길이었지만 광활한 漢江변 일대에는 수많은 골재채취장이 있어 하늘의 구름잡기식 취재였다。하나 단 한곳이라도 마대가 있는지의 여부라도 확인해보겠다는 욕심에 가장 가까운 곳을 택한 곳이 바로 雙龍洋灰채취장이었다。현장은 온통 자갈이나 모래언덕이었고 그 사이로 트럭이 드나드는 길가에 폐차버스 차체로 마련한 사무실과 숙소가 있었다。경비원이 있었지만 우리쪽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는 듯했다。

■"어딜 가느냐?"

차에 올라 첫 폐차 버스 사무실 차체옆을 지나려하자 두 세사람의 험상궂은 사람이 나오며 「어딜 가느냐? 어떻게 왔느냐?」는 말이 튀어나왔다。이쪽 역시 차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골재채취경기를 취재하러 왔다」는 대답만 하고는 계속 차를 안쪽으로 몰았다。골재채취선 가까이 가본 즉 골재채취선은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다른 편에 자갈과 모래를 나누는 選別機가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6~7명의 일꾼이 몰려 있었다。

일꾼들에게 엉뚱한 얘기를 건네며 그 選別機 뒤로 돌아 봤다。

역시, 뒤쪽엔 모래를 흘려 내보내는 큰 홈통이 달려있었다。철로 된 홈통은 폭이 80㎝, 깊이20㎝, 길이는 6m는 됨직했고 바닥에는 철망이 깔려 있었다。이를 본순간 『이거군!』하는 말이 튀어나왔다。그때 옆에 서있던 이 기계의 운전기사로 보이는 한 30대가 『네, 이게 砂金입니다』고 응수 했다。

이쪽의 『이거군!』이라는 무의식중의 말에 유도되어 얼떨결에 나온 대답이었다。

이런 문답이 오가는 사이에 손으로 철망을 만져보니 철망밑에 마대가 깔려 있었고 철망과 마대는 대낮의 햇볕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砂金가루가 붙어 있었으며 또 희끗희끗한 金빛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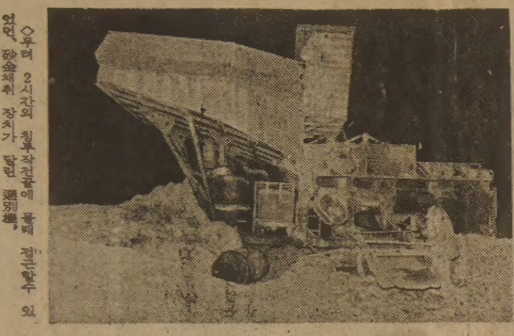
두사람의 대화는 어느새 나타난 빨간색셔츠를 입은 책임자인듯한 40대남자가 『어떻게 왔느냐?』란 말에 와해 중단될수밖에 없었다。

하여서야 무의식중의 대답을 깨달은 그 기사도 당황하는 빛이 되며 입을 굳게 다물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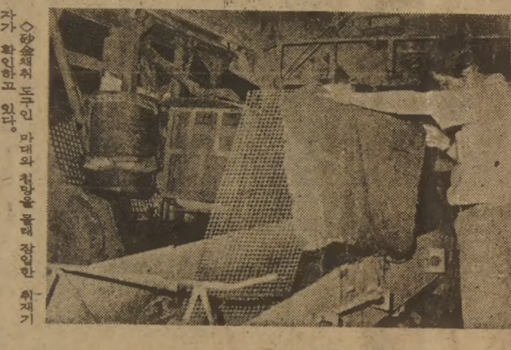
이제 더 이상의 취재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직감,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카메라를 꺼내 들자, 빨간색 셔츠의 사나이등 3~4명이 우르르 앞으로 나와 「안된다」며 완강하게 가로막아 섰다。

너무나 기세등등한 그들에 이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어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일단 철수해 차를 강하류쪽으로 몰아 그곳으로부터 나서 그 골재채취선 가까이로 접근해갔다。「그때 예의 그 빨간색 셔츠가 광장을 가로질러 첫번째의 버스쪽으로 사라졌다。다시 자갈더미에 올라가 사진을 찍고는 철수、서울로 되돌아왔다。



◇무려 2시간의 침투작전끝에 몰래 접근할수 있었던, 砂金채취 장치가 달린 選別機。



◇砂金채취 도구인 마대와 철망을 몰래 잠입한 취재기자가 확인하고 있다。

選別機얘기에 神經곤두세워

'밤일 하는 사람들 取材왔다' 핑계…

이날 저녁 에스코의 출장명령을 받아 다시 취재팀을 구성, 寫眞記者까지 3명의 記者에 K운전기사까지 일행 4명이 떠났다。

■現場일꾼과 對話거절

千戶洞까지 가서 임시 차량 야간통행증을 마련하랴, 운동화, 비상용 플래시를 사는데 시간을 쏘는 바람에 밤 10시께나 광진교 너머쪽의 강변도로를 따고 강을 거슬러 올라갈수 있었다。

약간의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여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로등 하나 없는 강변의 넓고 한적한 아스팔트 길을 취재차는 호기있게 달렸다。

왼쪽의 강변에 있는 거대한 골재채취선들은 고속광의 전등을 무수히 달아 장관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불야성은 마치 釜山이나 仁川항구에 정박한 대형선박을 연상케 했다。

모래섬 모양에 비포장 일주도로가 있는 이 漢沙里앞 섬입구 다리 주변엔 폐차 버스 차체로 된 간이식당이 5~6군데 있었고, 저멀리 雙龍洋灰골재채취장, 동아콘크리트골재채취장, 남성골재, 漢陽住宅, 永東開發등의 골재채취장 입간판이 잇따라 나왔다。요란한 불빛 소리가 무슨 큰 공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장관이었다。

취재팀은 「밤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기획취재를 하러왔다는 핑계를 대며 채취장으로 들어갔다。

취재팀은 다시 설득전을 벌였고 마침내 그들은 寫眞을 찍지 않는다는걸 조건부로 우리를 채취선까지 안내해줬다。

거창한 채취선은 24시간 계속 가동으로 쉬는 일이 없이 강물속에서 자갈모래를 한껏번에 퍼올리고 있었다。

麻袋·철망 발견즉시 가지고 車트렁크에…

카메라 꺼내자 우르르 몰려와 "안된다"

이런 기계들의 소음으로 열사람과의 대화가 어려울 정도였지만 자연반장이라는 20대의 그들은 우리 취재일행에 바짝 붙어다녔고 현장의 일꾼과 대화를 나누려하면 손짓으로 쫓아버렸다。

이곳 역시 자갈라인은 쉽게 볼수 있었지만 모래라인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조차 저지하는 태도였다。

기계가 있는 높은 언덕 아래의 물구덩이에 설치된 모래흠통은 자연스런 방법으로는 접근할 방법이 없었고 계속 흙이 흘러내리고 있는데다 또 거리가 멀고 어두워 철망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砂金얘기를 꺼내자니 그 후유사태를 예측키 어려워 감히 입밖으로 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그들은 選別機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빛이 역력했다。

記者들은 퇴진할 수밖에 없었다。

벌써 11시반이나 돼 잠잔이 바뀄다。

차량야간통행증을 갖추지 못한 취재차는 九里邑 너머에 있는 한 검문소를 12시이전에 통과하기 위해 속력을 내어 달렸다。

무사히 통과한 시각이 12시4분전。

德沼 가까운 도로가에서 야서잠은 채취선 촬영을 하고 다시 이날 낮에 찾아 갔던 雙龍洋灰골재채취장에 자갓은 子正이 훨씬 지난 새벽1시가 가까와진 때였다。

■함지박으로 砂金골라…

한밤 강변의 수위를 열어, 모자, 점퍼, 심지어 방한복까지 가져온 세 記者는 온몸이 땀에 푹 젖었다。

이 골재채취장은 마치 요새 비슷해 몇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세 記者는 選別機에 이르렀다。

B記者가 『여기다』하고 속삭이며 흠통속에 손을 넣고 더듬었다。하나 낮에 있던 철망과 마대는 온데간데 없이 철판바닥 뿐이었다。

P記者는 選別機가까이 다가가 두리번거리다 치워는 마대를 발견해냈다。뒤이어 B記者도 옆에서 철망들을 찾아냈다。

H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리고는 마대 한조각과 철망 하나를 증거물로 가지고 취재차로 되돌아나왔다。

기자들은 가져나온 철망과 마대를 무슨 전리품인양 차트렁크에 싣고는 신이 나서 德沼로 차를 몰았다。한밤중의 德沼里는 쥐죽은듯 조용했다。

배추, 당근, 쥐포, 그리고 시장기를 없애줄 빵따위를 한 상자나 사서 차트렁크에 싣고 다시 현장의 초소로 갔다。

아침 일찍 일단 회사로 되돌아 온 취재팀은 이날 저녁 P記者와 H記者, 그리고 운전기사가 일행이 돼 3차로 德沼로 갔다。

80노인인 현지주민 殷씨를 찾아 만나 옛날얘기를 듣고 또 砂金채취업자 金鍾國씨(45)를 잘 아는 한 주민을 만나 현황얘기를 들노라고 시간이 흘러 일행은 여관에 묵어야 했다。

이튿날 배를 타고 현장의 현물을 찾기로 한 P、H記者는 9시께 조그만 전마선을 한척 빌어 탔다。두 사람이 직접 노젓기를 맡았다。

강 저쪽까지 저어갔다가 이들은 곧 사람없는 모래보트가 서있는 모래언덕밑 가까이 뭔가 묻어있는 함부대가 있음을 발견, 배를 대고 올라가 뒤져보고는 비로소 砂金이 묻은 마대가 들어있음을 확인했다。

이때 H記者는 한 진귀한 광경을 포착했다。

그 골재채취선 지붕위에서 작업용 노란색 헬멧을 머리에 쓴 한 채취선의 인부가 함지박으로 砂金을 고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천만뜻 배로 접근하면서 H記者는 보자기로 2배■렌즈가 커워진 카메라를 감추며 셔터를 눌러댔다。

이런 사진을 촬영하는 사이에 골재의 그 마대에는 한 20대 젊은이가 전마선으로 접근해가고 있었다。

그 청년은 마대를 모터보트에 싣고 德沼쪽으로 달렸고 그쪽에 있던 우선에서 60대 할머니를 태워 강 상류의 모래섬으로 달렸다。

두 記者는 전마선을 힘껏 저어 그 섬에 갔다。

할머니는 사람 없는 섬에서 함지박으로 砂金을 고르다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어머 에기를 해줬고 엄지손가락끝의 한마디 크기인 砂金을 보여주었으며 사진도 찍게 해줬다。

어디서 實物을 확인해 내고야만 두 記者는 노를 저어 되돌아왔다。

두 記者는 마음속으로 환성을 올리느라고 피로를 잊기도 했지만 온몸은 땀에 푹 젖어 있었다。

Daily Newspaper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아 세 아
건 재 약 방
선 물 센 타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청심환을 대량직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고저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北京同仁堂
牛黃清心丸
大量入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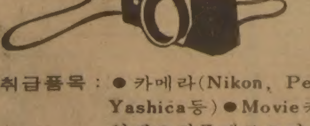
BIG SEVEN TRADING CO.
878 BLOOR ST. W. TOR.
(고려식품옆)
☎: 530－0522. 3
조지섭 · 김영철

스타☆미용실
파마 스페샬 세일: $28.00
(기간 : 7월말까지)
예약 : 741－4410
시간 : 아침9시～오후8시
휴업 : 매주 일, 월요일
주소 : 2437 FINCH AVE. WESTON, ONT. (Finch & We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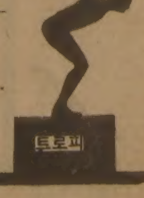
Hair Stylist—Keo Kim

PIONEER
CAR+HOME STEREO
각종 STEREO SYTEM.
Pioneer, Sharp, Hitachi, $499～$3,000 이상의 고급품.
Receiver, Tapedeck, Turntable, Audio Stand
각종의 스피커를 구비하고 있음.
카 스테레오, 각종 고급
카 스피커 취급함.
그외 고급 Cassette tape
야외용 Portable, Stereo도 구비하고 있읍니다.
HI-FI HOUSE
영업시간 : 10시－9시 ☎ : 633－2332
토 요 일 : 10시－6시
4544 DUFFERIN ST. UNIT 6
(휜치×더프린)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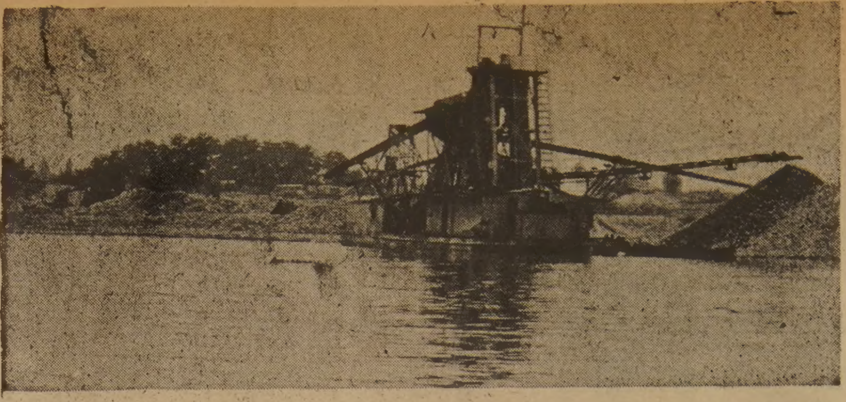


취급품목 : ● 카메라(Nikon, Pentax, Yashica등) ● Movie카메라 일체 ● 각종렌즈 ● 라디오, 망원경, 트리포트 영사기, 환등기, Flash ● 전자계산기 ● Vedeo Set, 카메라, 테프 전축바늘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경기도廣州郡東部面漢沙里앞 한강의 골재채취현장은 砂金채취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漢江 砂金 노다지에 核연료도……

한국版「골드·러시」現場

서울近郊 漢江에서 砂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소식은 관계업계는 물론 鑛業界, 그리고 관계學界에까지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장의 砂金채취업자들은 보다 많이 砂金을 채취해 국가 資源에 더 큰 보탬이 되게 해달라는 호소다. 또 學界등에서는 모래속에 섞인 砂金못지않게 중요 물질이기도한 重砂속의 核연료 도류므등을 채광하기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묶여있는 砂鑛 鑛業權을 풀고 砂鑛船을 도입해와야 한다는 외침이었다.

모래속에 砂金못잖게 核연료등에 쓰는 重砂도 많아

묶인 砂鑛 鑛業權풀고 砂鑛船 도입해와야

◆不夜城의 노다지꿈

漢江상류에서 3년전 부터 상당규모의 砂金이 비밀리에 채취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21일字 한국일보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版「골드 러시」의 현장인 경기도廣州郡東部面漢沙里에서는 골재채취장비가 현대화된 79년부터 砂金채취량이 급증, 지난해의 產金量은 40㎏(싯가4억7천만원상당)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골재채취의 부수물로서의 생산이 아닌 본격적인 채취를 한다면 매우 생산량이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砂金채취량은 지난해 우리나라 產金量 1천2백82㎏의 3·12%에 해당되는 적은 양이기는 해도 지난해에 5천㎏가까운 金을 수입해온 우리나라로서는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 金노다지다. 産業의 발전에 따라 날로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는 金이기 때문이다.

漢江에서는 예부터 砂金이 나왔었다. 60년전에도 漢江水가 굽이치는 漢沙里앞에서 砂金이 쏟아져나와 韓國주민 수백명이 농사일을 제쳐치고 砂金을 하며 한 사람이 하루 평균 5푼에서 1돈쭝은 거뜬히 냈다는것.

또 7~8년전에도 八堂里 아래쪽에서 砂金을 캐는 사람이 몰려들기도 했고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 강가의 나무뿌리를 흙아 砂金가루를 캐내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76년께 漢江하류에서 골재를 채취하던 채취선들이 골재를 찾아 이곳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砂金채취가 시작됐다.

하나 처음에는 골재를 채취하는 불용(?)이 가장자리에 마대를 깔고 체망을 그 위에 놓아 채취하는 식이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골재채취선 選別機등을 놓게됨에 따라 모래가 흘러나오는 홈통에 마대와 철망을 까는 방법이 창안되면서 제 많은 砂金을 채취하게 됐다.

이러자니 砂金마대도난사건이 잦은 편이어서 일을 실…

골재採取하다 砂金쏟아져…너도 나도 눈독

한사람 하루 純金 2돈쭝 생산, 돈쭝당 3만원씩에 넘겨

…계는 철저한 경비까지하게 마련이다.

별다른 건축붐이나 土木工事붐이 없는 요즘인데도 채취장들은 모두가 불야성의 작업으로 골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 이는 물론 기한내에 많이 캐놓고 보자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실상은 그들이 쉬쉬하면서 砂金채취에 더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한 砂金전문가의 귀띔이다.

◆무시 못할 砂金채취量

이런 상황이어서 漢江에서 나오는 砂金의 產金量에 대한 이론도 분분하다.

『공식집계가 안되는 만큼 파악이 어려워서 그렇지 합계는 엄청난 양 일것』이라는 업계와 『골재채취선의 인부들이 푼돈을 나눠갖는 정도니 절대 거액은 아니다』는 說이다.

漢江의 產金量은 이래서 예측조차 어렵다.

우선 漢江의 골재채취작업을 총괄하고있는 경기도산하의 漢沙지구개발사업소(소장 문성재)에서도 등록장비인 골재채취선 숫자조차 밝히길 꺼리는 의미한다.

이 사업소측에서는 『砂金이 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개의치 않았다』는 얘기.

골재채취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본다면 경기도 南楊州郡 瓦阜邑앞, 그리고 廣州郡 東部面 漢沙里와 船里앞 漢江의 골재채취선과 選別機의 댓수가 도합 1백대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가동중인 숫자는 50대에 가까운 숫자이고 이 기계들에서는 모두 砂金을 채취하고 있다는것.

이 가운데 한곳에서 매일 砂金을 수거해온다는 金鍾國씨(45)의 경우는 하루에 純金 2돈쭝을 생산, 돈쭝당 3만원씩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가하면 최고는 한달(작업일수 30일기준)에 1백50만원의 사례비를 내고 砂金이 묻은 麻袋를 가져가는 砂金채취업자도 있다는 것이어서 종잡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한강에서 나오는 金의 연 생산량이 40㎏이상인지 이하인지는 예측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골재채취장의 인부가운데는 주거불명인자가 많고 이래서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한데 이런 분위기속에서 金노다지를 둘러싼 암투까지 벌어지는 일도 잦았다는게 한 관계인의 귀띔이다.

심지어 몇년전에는 林모씨가 당시 官界의 거물 이었던 C씨를 등에 업고 10여곳의 金노다지땅을 독점했던일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빌딩벽·道路도 砂金

漢江에서 砂金이 채취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砂金채취자 金씨는 『보도를 계기로 보다 떳떳하게 더 많은 砂金을 채취할수있는 정부당국의 지원책을 바란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골재채취장의 한 부수적인 일로 砂金을 채취하고 있어서 제대로의 채취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것.

자갈과 모래를 분류하는 골재채취선이나 選別機들의 경우 모래를 너무 빨리 흘려보내고 있어 실제 채취하는 砂金보다 흘려 내버리는 砂金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래서 그는 『서울의 집벽속에는 숱한 砂金이 있을것』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아까운 砂金을 마구 내버리고 외국에서 金을 수입해오고 있다니 말이 되느냐…

…는 모나자이트까지 들어있어 우라늄을 수입, 原子力발전소를 가동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꼭 개발해내야할 과제란 것이다.

우라늄대신 도류므를 핵연료로 이용하는것은 세계적인 추세여서 이미 美國, 英國은 물론 인도에서도 이 도류므를 연료로 사용하는 原子力발전소가 있다는것.

動力資源研究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무려 4백만~5백만톤의 重砂매장량이 추정되고 있고 이 가운데 모나자이트는 80만톤가량될것이며 이것을 간단한 화학처리로 얻어낼수있는 도류므는 5~6%여서 4~5만톤으로 추산할수 있다는 것인데 이 양은 엄청난것이라는 설명이다.

모나자이트를 화학처리해 얻어내는 물질은 이 도류므외에도 공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세륨, 란타늄, 비토륨등으로 라이터돌등 발화재, 촉매재, 컬러TV착색용재등도 들어있어 더욱 귀중한 資源이 아닐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重砂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최근 세계 先進國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砂金船(DREDGE)을 들여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故 任永信씨가 예날 商工部장관시절 운크라를 통해 구식형인 바케트타이프의 砂金船을 한척 도입해와 中央大學校 재단으로 하여금 西海에서 砂金채취사업을 벌이도록 해 제 돈을 벌어들였었는데 7~8년전 폭풍을 만나 침몰돼 현재는 단 한척도 없다고.

動力資源研究所의 金元祚광산부장은 『砂金船을 도입해 오면 불과 1~2년만에 그 도입비를 회수할수 있다』고 말한다.

金교수는 『10여년전 京釜고속도로 공사때 서남해안에서 마구 골재를 채취해가는 바람에 수많은 양의 아까운 砂金과 핵연료 도류므등이 그냥 고속도로 바닥에 내버려진 셈』이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死藏되거나 버려지는게 더많아 아쉬운實情

漢江보다 西南海岸 하천쪽엔 더 많다고도

◇『砂金은 물론 核연료인 도류므를 추출해낼수있는 重砂가 사장되거나 버려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는 延世大 지질학과교수 金玉準박사.

◇떳떳하게 더 많은 砂金을 캘수 있도록 당국의 지원을 바란다는 砂金채취업자 金鍾國씨.

…나는 반문이었다.

이런 金씨의 말은 延世大의 지질학과 金玉準교수가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金교수는 『이런 귀한 국가의 資源을 마구 내버리거나 방치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漢江의 砂金은 경기도 일대의 片麻岩이나 花崗岩에 있는 金鑛이 풍화작용에 따라 강물에 쓸려 내려오는 것이지만 오래전 국립 지질연구소의 시추결과 經濟性이 없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이 漢江 보다는 우리나라 西南해안 하천쪽에는 훨씬 많은 砂金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당국의 무관심으로 사장되고 있거나 버려지고 있다는 것.

金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日帝시대인 1925년부터 42년사이에 砂金 37톤(이중의 20톤포함)을 채취했다는 것이고 또 動資部산하의 자원연구소가 지난까지 우리나라 砂鑛중 30%에 시추자원을 했던 결과 그 매장량이 18톤이나 돼 전국적인 총 매장량은 50톤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核연료도 버려진다

金교수는 砂金채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重砂도 砂金못지않게 중요한 資源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重砂속에는 안료와 염료공업등에 용도가 큰 이루메나이트, 철강·합금공업에 필요한 사철, 연마재, 보석재료인 석류석, 내화재와 원자로 재인 지르콘등이 있는가하면 우라늄대신으로 사용할수있는 핵연료인 도류므등이 들어있…

◇重砂의 鑛物별 주성분및 용도

	주성분원소	주요용도
이루메나이트 ILMENITE		안료, 염료공업, 도기공업, 용접봉, 경금속강철, 합금공업
사철		철강공업, 합금공업
석류석 GARNET		연마재, 보석류, 장식용
지르콘 ZIRCON		주물사, 내화재, 원자로재, 도자기, 특수금속용재, 특수고온재
모나자이트 MONAZITE	도류므, 세륨므, 란타늄, 비토름, 유로피움	핵연료재, 촉매재, 각종희귀원소재, 특수요업용재, 특수금속재, 발화재, 과학렌즈, 컬러TV착색용재

◇砂鑛광업권이 허가되고 7억원짜리 砂金船을 도입하면 重砂도 채취, 核연료인 도류므도 생산해낼수 있다.

토론토 한인합창단 보스톤 연주여행기념

초 여름 가족음악회 초청장

여름철을 맞이하여 본 토론토 한인합창단은 지난 5월에 있었던 보스톤 연주 여행을 기념하며 아울러 새로 만든 카셑 테잎 "한국노래 모음"의 출판제작을 기념하는 작은 가족음악회를 아래와 같이 가지며 귀하를 초청합니다.

연주 : 토론토 한인합창단 (박재훈 지휘)
독창 : 송 경 란
때 : 1981년 7월11일(토) 저녁 8시
곳 : ST. MATHEW UNITED CHURCH
729 St. Clair Ave. W.
(Christie 의 바로 서쪽)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 여름밤에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1981년 6월24일

토론토 한인합창단 재단이사장 정 혁 조 드림

※음악회후 다과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입장을 금합니다.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韓國의 恋人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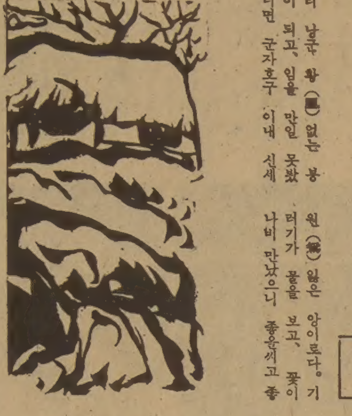
코리아 플라마 돈나 <下>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가루지기타령이 가장 사실적인 음서(淫書)임이 분명하지만 흥미위주의 유치한 음서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까닭은 다른 서민의 적나라한 소망을 벗겨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색정적(色情的)인 묘사가 음심(淫心)을 건드리지 않으며 오히려 삶에 대한 웃음을 부채질하고 있다. 더우기 조선왕조 사회에서 밑바닥 계층인 광대가 이것을 공연하고, 서민사회가 관람하면서 생활의 윤활유 구실을 한 점에서 조선왕조 서민문학의 걸작이라고 평가해야겠다. 또한 변강쇠와 옹녀의 모습에서 젊은 사람을 감정 체험하게 된다.

변강쇠와 옹녀는 서로 업고 사랑가를 부르면서 정을 다진다. 『사랑 사랑 사랑이야』 유왕(幽王) 나자 포사 나고 걸주(桀紂) 나며 달기 나고 …호색남자 내가 나며 절대가인 너 났구나. 네 무엇을 가지겠느냐? 조저적 후 심이승 야광주를 가져볼까? 십오성(十五城) 바꾸려면 화씨벽(和氏璧)을 가져볼까? 천지신지(天知神知) 아지자지(我知子知) 생금덩이 가져볼까? 부도계산 독은옹 은항아리 가져볼까? 배금문 입자답에 상평통보 가져볼까. 밀화불수 산호비녀 금패지환 가져볼까. 네 무엇을 먹고 싶어, 둥굴둥굴 수박 웃봉지 떼고 강릉 백청 따르르 부어 은장도로 휘휘 둘러 씰랑은 뚝 따 발라버리고, 붉은 자위만 덤벅 떼어 아따 조금 먹으려나. 시금털털 개살구 아어서는 데 먹으려나. 꽉 깔고 락 뻗으면 찌질 꽉지 전너 바닥에 축척속 부딪치는 반수시(半水柿) 먹으려나. 무릉도화 복숭아 주랴. 이월 중순 이 진과(眞瓜)의 가지 당창의 먹으려나.』

그러자 이번에는 옹녀가 강쇠를 업고 실금실금 까불면서 사랑가를 부른다. 『사랑 사랑 사랑이야. 태산같이 높은 사랑. 해하(海河)같이 깊은 사랑. 남창·북창 노적같이 다물다물 쌓인 사랑. 은하직녀 직금같이 올올이 맺힌 사랑. 모란화 송이같이 펑퍼져버린 사랑. 세곡선 닻줄같이 타래타래 꼬인 사랑. 내가 만일 없었더면 풍류남자 우리 낭군 황(凰) 없는 봉이 되고, 임을 만일 못봤더면 군자호구 이내 신세 원(鴛) 잃은 앙이로다. 기러기가 꽃을 보고, 꽃이 나비 만났으니 좋을씨고 좋을씨고. 동방화촉 무엇하게 배인향만 더욱 좋다. 황금옥(黃金屋) 내사 싫어. 석곽에 신방(新房) 어떠냐.』



이보다 농도 짙은 부부애정담(情談)이 있겠는가. 그들이 불행한 과거를 안고 있고 우연히 숙각적으로 맺어진 부부인데다가 바위 위에 신방을 차린 선세-관객들보다 훨씬 불행하고 가엾은 처지이면서 애정만은 누구보다 크고 뜨거우므로 서민들로 하여금 행복의 가능성을 불안케 충동질한다. 당시, 아니 현대의 남녀 누구라도 이상으로 여길 사랑놀이를 꿈이 아닌 현실로 인식 시키고 있다.

사랑가를 끝낸 강쇠와 옹녀는 『재미있는 그 노릇을 한 두번만 할 수 없으므로 재행터 삼행터를 당일에 다 한후』 살림걱정을 한다.

둘이 손목잡고 원산(元山) 강경(江景) 포주(浦洲·忠南舒川) 법성(法聖·全南靈光)등 도방 각처를 다니면서 옹녀는 들병장사, 막장사, 낮부림, 넉장질로 돈을 번다. 그런데 강쇠는 닷냥내기, 방때리기, 두냥패에 가보하기, 갑자프리 여수(與受·골패)하기, 미골회패·호홍호배·터럭기 수더귀, 경계두기 윷놓기와, 한집 두집 고누두기, 의복 전당 술먹기와 남의 싸움 가로막기, 그중에 무슨 비위 강새암, 계집치기 밤낮 싸움으로 세월을 보낸다. 이런 꼴을 보다못한 옹녀가 산중 도피생활을 제안한다. 아무도 없는곳에서 나무나 베어팔면 노름을 못할테고 강짜도 않을테니까. 옹녀의 제안에 강쇠도 찬성한다. 『심남을 굶어도 남의 계집 바라보며 눈웃음하는 놈만 다시 아니보게되면 내일 죽어 한이없네』라면서.

가루지기 타령은 庶民생활에 윤활유 구실을 한 傑作

강쇠는 장승저주 아니라 게을음에 대한 저주로 죽어

인간은 누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하는 꿈을 한번쯤 사린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의 눈에 깊이 빠진 연인이나 애정을 불태 지피는 부부일수록. 그러니 천하일색인 옹녀가 동병장사 마장사를 나갔을때 눈웃음보내기 일쑤이고보면 강쇠가 도피생활을 마다할리 없다. 이는 바로 산중생활을 이상향으로 여긴 한국인들에게 꿈을 던져보인 것이다.

부부는 소망대로 지리산 청천한 깊은 골에서 빈 집을 찾아 보금자리를 연다.

그런데 그들의 꿈은 쉽사리 조각났다. 낙엽을 긁어다가 저녁밥 지어 먹고 터누르기 삼삼구(三三九)를 밤새도록 하는것은 좋았지만 평생 일해본 적이 없고 게으른 천성이어서 밤낮으로 하는것이라곤 잠자기와 그 노릇뿐이므로 굶거나 얼어죽을 판이다. 옹녀가 강짜를 부린다.

어느 날 나무를 해오라고 등을 민다. 강쇠는 지게를 지고 나섰으나 막막하다. 여자와 술과 놀이로 호사스럽게 사는 것이 꿈이었던 강쇠가 나무를 벨줄도 모르거니와 베기가 싫어 구불거리다가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난 후, 빈 손으로도 돌아올수 없으므로 길가에 선 목장승을 뽑아 지고온다. 예 아니 쓰고 좋은 나무를 해왔다고 으시댄 강쇠는 옹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밥상을 물린후 도끼를 듣고 달려 들어 장승을 쾅쾅 패어 군불을 많이 넣고 『유정부처 훨떡벗고 사랑가 불러가며 개폐문(開閉門) 정례판을 벌여게』 하였다.

그런데 동티가 난다. 장승을 패 땐 동티는 어렵다.

『파곰파곰하는 것은 조왕동중 정녕 났게』 제 기를 보이면서 『불끈불끈하는 수가 목신동중 정녕 났게. 가난한 살림살이 굿하고 경 읽겠나. 목신하고 조왕하고 사화(私和)를 붙여 보세』 아침밥 끼니 예워 한 판을 질끈하고 장담을 실컷 하여….

이처럼 동티가 나기 시작한 강쇠는 장승들의 저주로 그날 저녁 병을 얻는다. 이를 꽉 아드득 물어 미음 들어 갈수 없고, 낭자한 부스럼이 어느새 농창하여 피고름 독한 내에 코를 들수가 없다.

옹녀가 소경을 불러다가 경을 읽고 함양 자바지명의인 이진사를 불러다가 탕약, 환약, 침을 놓았지만 끝내 죽는다. 그런데 강쇠는 장승의 저주로 죽은 것이 아니다. 게으름에 대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어느 사내인들 강쇠처럼 멋진 옷과 패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여인과 술과 놀이로 방탕스럽게 살고 싶지 않을까. 하지만 낮에는 잠만 자고 밤이면 여인과 뒹굴면서 살 수야 없잖은가. 강쇠가 만가지 이상의 병으로 허무한 꿈에서 영원한 잠속에 파멸으로써 제 은 한국 남성들에게 경고를 던지고 있다.

不良氷菓類 전염病 위험

여름철 食中毒과 그 豫防요령

기온이 높은 여름철엔 각종 음식의 변질·부패·오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해·불량 식품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자신들이 식품에 관한 상식을 갖는게 중요하다. 여름철에 흔히 있는 식품피해의 원인과 병을 음식 종류별로 알아본다.

▲빙과류와 음료=아이스크림, 아이스캔디등은 우유, 계란, 과즙, 설탕등을 섞어 만든것을 얼린것으로 원료가 변질·오염된것을 사용했을 땐 얼린후에도 유해하다. 흔히 빙과를 먹고 설사를 일으키는것은 대부분 변질된 재료를 사용했거나 잡균이 들어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또 판매 운반과정에서도 사람의 손, 먼지, 포장등에서 병균이 침입하는 수가 있다.

이같은 제품을 먹었을 때는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같은 장계(腸系)전염병의 위험이 있다.

음료중에는 당분이 많아서 세균의 번식이 용이하다. 또 유독한 색소나 방부제를 넣어서 만든것도 있다. 음료는 대체로 많은 양을 마시는 경향이 있어 방부제나 색소의 함유농도가 낮다 하더라도 전체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위장애나 설사, 중독의 위험이 있다.

▲채소·과실=채소나 과실은 다같이 농약에 오염되어 있을 때가 많다. 농약은 주로 살충제이지만 그중에서도 유기인제제는 독성이 강해 충분히 씻지 않고 먹으면 중독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채소나 과실에 부착된 유기염소계 농약은 그 양이 극히 미량일지라도 우리 몸의 지방분에 흡수되어 잔류하며 간장장해나 암의 원인이 될때가 있다.

따라서 포도나 딸기등은 물로 간단히 씻겨지지 않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여러번 씻어야 하고, 토마토, 사과, 배등은 꼭지부분에 묻은 농약을 씻기가 어렵기 때문에 베어 버려야 한다.

채소의 경우, 기생충란이 묻어 있거나 유충이 있을 때가 많으므로 4~5회 잘 씻고 가급적 가열해서 먹도록 한다.

▲육류·우유=여름철엔 단백질을 많이 포함한 육류와 우유, 그리고 그것을 재료로한 음식은 부패하기가 쉽다. 부패한 단백질 식품에는 유독한 아민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식중독을 일으킨다. 부패의 원인은 잡균이 침입하고 높은 온도에 두기 때문이다. 단백질 식품이 변질한 것을 먹고 두통, 두드러기, 발열, 설사와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때도 있다.

우유는 그 자체에 1cc당 약 5만~10만의 세균이 포함되어 있는것을 정상우유로 취급하므로 대단히 변질되기 쉬운 음식이다. 변질은 주로 산패이지만 때로는 전염병균, 포도상구균도 번식할 수 있다. 병균·식중독균의 번식이나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선 우유를 청결한 방법으로 소독·포장·운반해야 하고, 보관은 되도록 차게 해야한다. 육류나 우유는 냉장시설이 없고 위생지식이 부족한 행상이나 무허가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사지 않는게 안전하다.

◇유통과정에서 변질된 빙과류.

家庭통해 能力발휘 해야

梨大 都市主婦 의식조사서 밝혀져

우리나라 도시의 가정주부들은 대부분이 가정일을 통해서 여자의 능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딸은 장래 가정에 전념하기를 바라고 있어, 주부로서의 역할을 태어나면서부터 여자에게 주어진 본분이라고 의식하는 경향이 높다.

이같은 사실은 梨花女大 家政大 文淑才교수가 서울시내 가정주부 5백13명을 상대로 실시한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대한 의식과 실태조사」(論叢 제37집)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57·1%가 「현재 가정주부로서의 위치가 그저 그렇다」고 대답했고 31·8%는 「아주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아주 만족하지 않다」는 8·8%이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이처럼 차이가 나면서도 70%이상의 주부가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가정주부로서의 위치에 만족할수록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수행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의 목표이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정일과 직업을 여성능력발휘의 측면에서 볼때, 전체의 52·4%가 「가정일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일이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어려우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단지 37·6%만이 가정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조사대상 주부들의 과반수가 가정생활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을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결혼후 곧 혹은 자녀가 생긴 직후 가정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주부가 71·3%나 되었는데, 이는 비록 오늘날의 능력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가치관에 따라 여성의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능력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자가 가정에 전념하는것은 여자에게 주어진 본분이므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목표에 대해서는 94%의 주부들이 가정생활을 이끌기 위해선 가정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목표의 설정은 부부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55%이며 전가족이 설정해야 한다는 주부가 35·7%이다.

夫婦 아베크 칼럼

今週의 主題

건강

金良灝씨

趙東春씨

나는 그 동안 건강에는 자신만만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풀가동시켜 연중무휴로 10년 세월을 뛰었다.

점심 먹을 틈이 없어 굶고 뛰는 경우도 허다했고 차 안에서 빵으로 때웠지만 건강했다.

노교수들이 『대단한 정력이야』『한창 때야』하고 부러워 할 적마다 웃어넘겼다.

또 중년의 남자들이 『갱년기가 왔다』『정력이 어떻다』『나이가…』할 때도 웬 엄살이 저렇게 대단할까 했다.

한데 몇달전부터인가 몸이 무겁고 이유없이 머리가 멍하며 쉽게 피곤이 온다.

옛날에는 하루에 평균 8시간정도 열강을 해도 끄떡없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갑자기 서너시간의 강의에도 녹초가 된다.

그래도 이까짓 정도는 견디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내왔는데 주위 사람들의 성화로 병원에 갔더니 과로로 인한 현대병들의 초기라는 것이다.

『지금이 시작이니 그렇지 더 오래 있었으면 큰 일 날 뻔 했읍니다.』

의사의 말에 조기발견, 조기치료라는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확실히 나는 그동안 너무 무리했다. 자신의 몸을 돌보기는 커녕 <전천후 인간>임을 자랑하며 무모하게 일해왔다.

그래서 요즘은 일요일이면 어떤 강의, 어떤 모임도 일단 거절하고 아내와 함께 교외의 산수 좋은 곳에 나간다.

어린 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가 냇가에서 족대로 물고기도 잡고, 아내는 산나물도 뽑는다.

한 주일동안 사회인의 가다듬은 자세에서 철저하게 자유분방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맑은 공기, 맑은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재무장하고 새로운 한 주일을 맞는다. 다시 힘이 솟구침을 느낀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네나·오닐박사의 <기어체지>라는 책의 교훈이 생각난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동차가 고빗길을 올라갈때 기어를 바꿔야하는것처럼 정신적·육체적으로 사고와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수있다.」

건강은 모든 생활의 원천임을 새삼 인식하면서…

(언어문화원장)

우리 부부는 <각자 아프기>로 했다. 대신 아파줄수도 없고 대신 치료가 가능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말자는 뜻에서였다.

늘 시들시들 하면 나도 오기가 생겼는지 덜 아픈 것 같았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정신없이 돌아치기 때문에 저녁이면 특별한 숙제가 없는 한 잦아들듯 잠자리에 들곤 한다.

결혼해서 어언 8년, 입원을 하지 않고 견뎠다는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미리 약방에 들러 약을 준비해 와서 의좋게 나누어 먹는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좀 어떠냐고 서로 묻지도 못하고 뛰며 살았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나에게 이상이 왔다. 목,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다.

목에 좋다고 주위에서 권하는 약은 다 먹어 보았다.

초란, 토룡탕, 병원약등, 어느 것 하나도 쉬는 것보다 나은 약은 없었다.

그러나 「쉬는 것」이 제일 어려운 약이 아닌가? 하루도 쉴 수 없는 노릇. 심지어는 일요일 마저 강의에 쫓기다 남편이 완강하게 일요일만은 쉬자고 해서 5주 정도 쉬었더니 한결 좋아진 것 같았다.

기계도 기름을 치고 쉬어주고 쉬어 줘야 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 인가보다. 하루를 자연 속에서 보내고 나면 몸은 좀 피곤해도 마음과 정신이 맑고 생기가 난다. 적당한 휴식은 육체의 건강 뿐 아니라 부부의 사랑 또한 건강해 진다.

남편도 늘 피곤해 하며 일에 의욕을 잃어 가더니 일요일의 휴식으로 완연히 건강을 되찾은듯 보인다.

부부가 한평생 건강하게 살아 간다는 건 정말 오복중의 하나란 말이 실감난다.

항상 건강하고 항상 젊어있는것 같아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쇠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편은 조금 있으면 갱년기가 올 것이다.

미리 미리 건강을 위해 시간을 배려하는 자세는 부부의 백년해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아내교실 실장)

<다음 주제는 「단골집」>

◇노벨賞수상자들은 「굶어죽어가는 수천만명을 살리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80년 노벨상시상식).

海外

現세계 秩序는 「大虐殺」

노벨賞수상자들 共同宣言

科學, 文學, 平和등 각분야의 노벨賞수상자53명은 25일 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늘날의 세계질서를 「대규모餓死로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대학살」이라고 비난하면서 세계빈민들에게 基本人權을 제외한 모든 법률에 대한 不服운동을 전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손·맥브라이드, 아돌프·페레즈·에스키벨등 전세계의 노벨평화상수상자를 포함한 이들 賞수상자들은 제네바와 로마, 브뤼셀, 본, 파리, 오타와, 뉴욕등 세계7대도시에서 동시에 발표한 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국제정치, 경제무질서때문에 수천만명이 헐벗고 굶주리며 죽음에 놓여있다고 통렬히 주장했다.

이 선언문은 權力을 가진 모든 사람과 정부 그리고 權力者들은 세계의 천민층과함께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는 이름아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잔인하고도 메마른 유토피아를 번복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선언문은 만일 절망에빠진 사람들이 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보다많은 사람들이 기본인권 이외에 모든 法에 불복하여 약자들이 조직화하여 비폭력의 조직된 힘을 사용한다면 이같은 엄청난 재난은 우리의 당대에 종식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언문은 전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을 지냈던 사드루딘·아가칸公과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장인 스리랑카의 가마니·코레아에 의해서 전세계에 발표됐다.

굶주림만큼 비참한 일은 또 없다.

세계의 良心이 이번에 울고 나온 공동선언문의 발표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수천만명에 달하는 餓死者나 餓死의 위협에있는 모든 지구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목마른 사막에서 얻은 한방울의 오아시스보다 더욱 값진 것이다.

노벨수상자만이 이를 주장한것이 아니라 무기경쟁에 혈안이 되어있는 세계의 강국들이 공동선언서에 명기된 일에 조금만이라도 협조한다면 지구상에서 굶고 헐벗는 이들이 조금은 없어질것이다. 세계 良心의 소리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보자.

고국여행은 대한항공으로

大韓航空 토론토영업소

KAL

390 BAY ST. SUITE #402
TORONTO, ONT.
예약판매 : 862—8250
장거리 무료 : 800—268—9431
(온타리오(토론토제외), 퀘벡)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㉚

金洪信 作
崔然石 畵

삼십대 초반의 여자 눈에 분방울이 맺히면 그것이 어떤 능력을 갖는 것인지 나는 구분할 줄 몰랐다. 그러나 그녀의 눈물은 서러움과 한 맺힌 눈물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었다.

삼십대 여인의 눈물은 희열의 눈물이거나 통한의 눈물인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나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누나, 왜 이혼을…』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어린 내 가슴에 못질을 할만큼 사내를 사랑했고 사내의 성공을 위해 희생은 되본 여자였는데.

『그럴 일이 있어. 차마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눈물을 닦는 은주 누나의 얼굴은 내가 잊지 못하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한이 서린 얼굴, 굴욕감을 감수하려는 의지, 어떤 내게 차마 말하기 거북스러우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자존심을 뭉개친 자신을 질책하는 울분.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누나가 감옥엘 갔었단 말야?』

『으응! 그게…그렇게 돼서.』

『왜? 누나가 왜 가? 누구 때문에, 뭐 잘못했다구?』

나는 역정을 냈다. 은주 누나만은 감옥에 가서도 안되고 갈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은주 누나는 내 상상 속에 작은 천사였었다. 그녀가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고 나는 믿었다.

은주 누나는 옆으로 돌아앉았다. 죄니 때와 달리 군살도 있었고 앞가슴도 더 풍만해진 것 같았다.

『널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왠지 갑자기 생각나드라.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단 생각도 들고 말야. 마침 충찬이네 고향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전활 했어. 그랬더니 충찬네 집에 연락해서 알아냈어. 졸업을 했거니 했더니… 아무튼 반갑다.』

『다른 소리 말고 왜 감옥에 갔었는지 말해봐. 남편 때문야?』

『그래, 그렇게 됐어.』

『그 새끼…』

나는 욕지거리를 하려다가 멈췄다. 앞뒤 사정을 모르고 욕부터 먼저 할 수 없는 상황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군식이에게 감정이 많았다. 괜히 미운 털이 박혀서 턱을 올려붙이고 싶은 사내였다.

『누나가 뭐 잘못한 거 있는 거야?』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있으면 있구, 없으면 없는 거지.』

『있다구 하면 있겠고, 없다구 하면 없겠고… 난 억울해서 그래.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무슨 일인데. 속 시원하게 얘길 해얄거 아냐.』

『그래, 까짓거 얘기하자.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이니까.』

은주 누나는 체념한 듯이 구석자리를 가리켰다. 나는 구석자리로 자리를 옮기며 커튼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붉은 조명등 한개만 켜져 있는 자리였다. 은주 누나는 어두운 속에서

지난줄거리

천국직행교에 대한 복수와 억울하게 누명 쓴 농부의 문제를 해결한 충찬이는 중간고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때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 없는 여인인 은주 누나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는다. 추억의 여인, 첫 사랑의 여인인 은주 누나는 뜻밖에 모 이혼녀가 되어 있었고 감옥에서 나온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하소연을 한다.

코를 훌쩍 마셨다. 울고 있는 은주 누나를 나는 끌어안고 싶었다.

누나는 나를 팔 베어 재워주곤했었다. 그때처럼 누나의 가슴에 파묻히고 싶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누나만 생각하면 언제고 포근했다.

『애들도 잘 크고, 그 사람도 큰 회사 부장이고 부족한게 없이 살아왔었다. 구체적으로 행복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사는것 같이 말야.』

은주 누나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울었다. 어깨를 들썩거리기도 했고 자구 코를 마시기도 했다.

『누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옛날처럼 강한 누나였음 좋겠다. 나를 매섭게 다루던 그 누나 말야. 울지 좀 마.』

나는 역정을 냈다. 은주 누나에 대한 내 감정이 너무 쉽게 깨어지고 있어서 나도 견딜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나도 그래.』

한번 더 눈물을 훔친 은주 누나는 내 쪽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얘길 들어봐. 나로선 어쩔수 없어서 이래. 나는 어느날 갑자기 화냥년이 되어 버렸어. 부정한 여자, 아주 간교한 여자가 된 거지.』

눈물이 왜 그렇게 흔하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강직하달 만큼 굳센 여자였었는데.

『맞벌이를 하고 그이가 꼬개 쓰고 해서 우린 아파트 한채를 살 정도가 됐어. 조그많고 보잘 것 없지만 말이다.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문제야. 아파트 순위가 빠르기 위해선 정관수술을 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매겨진다고 했어. 그런 적 있잖니. 그래서 그이는 딸만 하나 낳아놓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정관수술했다는 증명서를 한 장 만들었어. 물론 알만한 곳에 가서 거짓말로 서류를 만든 거지. 아들을 꼭 낳겠다는 그이 뜻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어.』

『가짜로 그런 서류를 만들었단 말이지.』

『집은 사야겠고…그렇다고 어디가서 부탁하기도 그렇고…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샀어.』

30대 어중떤 女人은 알맞게 부끄러움을 잊을나이

나는 울고 있는 누나를 안고 싶었다, 그 가슴은 언제나 포근했다

『그게 무슨 문제란 말야?』

『들어봐. 그게 문제가 아닌지.』

은주 누나는 잠깐 사이에 냉랭한 이만큼 침착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셈인지 우린 애가 없었어. 병원에도 가 보고 산에 가서 기도두 했지. 내가 그렇게 변하더구나. 애가 없자 그이는 자꾸 변해졌어. 뭐라고 꼬투리를 잡을 수 없었지만. 그이는 큰 회사에서 마침 픽업을 해 갔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도 했어.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해졌고 그이는 수완좋게 부동산 투기도 했고 증권도 사들여서 정말 없는 것이 없게 됐어. 걱정이 있다면 아들이 없다는 것 뿐였어.』

『아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 나원 참.』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구나. 너두 이담에 누나 말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부러운 거 없이 살았는 데…그이가 뒤늦게 바람이 났어. 아들 없다는 핑계로 차마 너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까지 하고 다녔어.』

『그걸 그냥 뒀어요?』

『아들 없는 죄지 뭐. 난 참고 견뎠어. 바보였지. 지금 생각하니 정말 난 바보였어. 그런데 뜻밖에 내가 임신을 한 거야. 얼마나 기뻤겠니? 생각해봐. 정말 너무 기뻤어.』

나는 담배를 피워대며 누나를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누나는 맥주를 잔 끝까지 마시고 탁자 위에 곱게 놓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이는 나보고 누구 씨앗이냐고 다그쳐 묻기 시작했어. 이런 원통할 데가 있니?』

『누난 정말 다른 일 없었지요?』

『그래, 그러니까 더 억울한거야. 몇번이나 이혼하자구 할 때부터 알아차렸어야 하는 건데. 그인 지독한 노랭이야. 원체 고생하며, 없이 살아와서 그런 거겠지만, 내가 봐도 너무 지독스러웠어. 위자료 없이 이혼하려고 든 사람이니까. 난 악이 나서 악착스럽게 위자료라도 받으려고 했었어. 그인 그걸 노린 거야.』

『뭘 노렸다는 거야. 임신했겠다, 핑계가 없어진 거겠지. 갑자기 여유가 생긴 사내 새끼들 특유의 공통점이 오입질인 건데 뭐.』

나는 씨익 웃었다. 은주 누나는 수

『그이는 정관수술을 해서 애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였어. 그런데 내가 임신했으니까 부정한 짓을 했다는 거지.』

『가짜로 아파트 추첨하려고 멘처라며 확인하면 되잖아.』

『휴우….』

누나는 맥주를 따라서 한모금 훌쩍 마셨다. 얼굴이 붉어 오르는 기색이었다. 어두운 조명이었지만 확실히 은주 누나는 취한 것 같았다.

『확인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이는 정관수술을 했어.』

『그럼 병원에서 정밀조사를 받으면 되잖아. 정충이 있는지 없는지.』

누나는 나를 빤히 올려다보고 힐없이 웃었다.

『별 걸 다 아는구나. 왜 안했겠니. 했지. 정충이 안나온대. 그러니 어찌 됐겠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난 앉은 자리에서 감옥에 가고 말았어. 간통죄였다. 내 팔자에 간통이라도 하고 살았으면…』

누나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몹시 서러운 흐느낌이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무슨 얘기야? 생각해 봐, 잘 모르지만 그게 무슨 얘기야? 귀신이 곡하지 않고 배겨. 누나가 꼼짝 없이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는 거잖아. 과학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누난 결백하다고 하고… 당연히 누나가 감옥엘 갈 수 밖에.』

그녀는 교묘한 함정에 빠져 不貞女로 몰리게 되고

무슨 수를 쓰든 그녀석을 찾아 혼내 주려고 밤잠을 설치는데…

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교묘한 술수를 썼다고 하지만 그것은 혼란한 사건 뿐이었다.

『하나님은 알 거야. 이 억울한 사연을. 정말 하나님은 알 거야.』

누나는 내 손목을 쥐고 내 가슴에 쓰러져 울었다. 언제나 누나를 생각하면 내가 누나의 가슴에 파묻혀 울었다. 이젠 그것이 거꾸로 된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에 누나에게 장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내 머리를 흔들었다. 그럴수는 없었다. 그런 내 동정심으로 누나를 돕자는 각오를 했다.

『하나님이 뭘 알아. 이러지 말고 더 얘길 해 봐. 누나 생각은 어떻다는 건지 말야.』

누나는 고개를 들었다. 좁은 공간 어디에도 눈빛을 두지 못하고 있었다. 어두웠으니까 누나에겐 용기를 주는 장소였을 것 같았다.

『이건 연극이었어. 내 추측이 맞을 거야. 처음 임신했다니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 그런 후에 감쪽같이 연극을 꾸몄을 거야. 정관수술도 몰래 했을 거고 계획적으로 나를 내쫓아서 위자료 한푼 주지 않을 작정을 했을 사내야. 내 말 못믿겠지만 정말 그러고 남을 사내야. 그이는 출세해서 아주 일류 신사가 됐고 나는 교육대학출신에 못생긴 예편네고…그래서 그이는 언제나 불만 투성이였어.』

나는 웬지, 그 순간에 누나의 추리력을 믿었다. 상황이나 사내의 여러가지 조건과 욕망으로 보아서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그럴 만한 재간이 있다고 믿었다.

『누나, 지금까지 한 말 믿어도 돼?』

『하나님은 날 알 거야.』

그 한마디로 나는 누나를 믿기로 작정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만 이 가엾은 누나의 추리력과 내 상상력을 합쳐 시키며 사내의 술수를 밝힐 지 아득했지만 나는 일단 누나를 돕기로 결심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내 최고의 자존심이었다.

누나는 밤이 새도록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 어두운 술에서 맥주를 곱입없이 홀짝거리며 마신 누나는 억울한 사연을 부끄러움 없이 조잘거리고 있었다. 더러는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느 것은 전혀 믿어지지 않는 잠자리 얘기까지도 서슴없이 했다.

삼십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여자.

나는 은주 누나를 이렇게 단정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삼십대 여자의 특권일 것이다.

『누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새끼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거야.』

『그렇게 해선 안돼. 보통 사람이 아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니.』

『누나, 나하고 헤어진 게 열여섯 살 때야. 그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알아? 그런 새낀 한주먹으로 해치울 수 있어.』

『안돼. 무슨 짓이고 할 사람야. 그렇게 출세한 것도, 돈 번 것도, 나를 몰아 낸 것도 다 그의 계획대로 된 거야. 무서운 사람야. 너무 무서워.』

『난 해낼 거야.』

『안돼. 제발, 정당한 수단을 써야 돼.』

『물론이지.』

누나의 목소리는 점점 가라앉았다. 술취한 목소리라서 새겨듣지 않으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 새끼가 어떤 새낀데… 회사돈 빼내는데도 귀신같은 놈인데…. 다 얼마나 줬지 아니?』

누나는 술이 취하자 군식이를 헐뜯기 시작했다. 마음 내키는대로 욕지거리도 했다.

『위자료 말야? 얼마 받았는지 아냐구? 내가 얼마 받았는지 말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흐으으….』

힘없이 웃는 얼굴 위로 증오의 빛깔이 떠올랐다.

『2백만원 주더라.』

『2백만원!』

『그래, 2백만원. 내가 처음 결혼하고 셋방 얻을때 내놨던 액수지.』

『그래서 그걸 받았어?』

『받지 않고 어떻게 하니. 간통죄로 감옥에 앉았는데… 변호사가 그러더라. 이혼합의서에 도장 찍으면 취소해준다고. 그래서 찍어줬어. 생각같아선 감옥에서 평생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버티고 싶었지만.』

은주 누나가 감옥에서 풀려나오자 변호사가 이백만원 짜리 수표 한장을 내밀었다고 했다.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만큼 생각하는 남자도 없을 거라고 했단다. 간통한 부인을 석방시켜 주기 위해 뛰어다니고 이혼한 뒤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여행이나 하라면서 이백만원씩 주는 사내가 어디 있겠느냐고 남편을 칭찬했다는것이다. 정말 그럴 듯하게 어울리는 말이었다.

『간통한 마누라에게 이백만원씩이나 여행비를 주는 새끼처럼 훌륭한 사내가 어디 있겠니.』

은주 누나는 자조적으로 지껄였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계속 맥주를 마셨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횟수가 잦아지더니 결국 은주 누나는 내게 매달려 울기 시작했다.

『내가 해명해 줄게. 이러지 마. 제발 정신 좀 차려.』

나는 누나를 끌어안았다. 뭉클 눈물이 흘렀다. 정말 얼마만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울지 않고 살았다. 철이 나고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눈물을 남에게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철면없는 여자 앞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누나, 가자. 어서 가자.』

나는 누나를 부축하고 일어섰다. 누나는 내게 매달려 겨우 걸었다.

『이거 너 가져라. 난 필요없어.』

이백만원짜리 수표를 내민 누나의 팔목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나는 누나의 팔목에 입술을 댔다.

은주 누나가 늦게 들어오면 난 밥을 지어놓고 반찬을 만들다가 손가락을 다쳤을 때 누나는 내 손가락을 그렇게 빨아주었었다.

하숙집 문턱에서 은주 누나는 한강히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었다.

나는 되돌아 서서 가까운 여관으로 누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아랫목에 누운 누나는 울고 있었다. 흐트러진 치마단 사이로 속치마가 보였고 큰 젖가슴 한쪽이 눈부시게 보였다. 나는 누나를 훔치고 싶었다. 옛날부터 갖고 싶던 누나였다. 누나를 끌어안고 자면서 언젠가는 내것이 될 거라고 믿기도 했었다.

나는 누나의 이마에 입술을 맞추었다. 누나가 실눈을 뜨고 웃었다. 나도 웃어주었다.

누나는 금새 잠들어 버렸다. 이불을 덮어주자 한번 꿈틀 거렸다. 치마를 여며주고 불을 껐다.

웃목에 앉아 나는 잠든 누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초췌했지만 예전처럼 예쁜 모습이었다.

갖고 싶었다. 아주 훔치고 싶었다. 그러나 난 누나를 훔칠 수 없었다. 그것이 내가 사랑했던 내 마음을 배신하기 싫은 표정이었다.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은주 누나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성질대로 하자면 이 밤이라도 군식이에게 달려가 앞뒤 따질것없이 주먹으로 그의 콧잔과 술수를 덜어놓게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해서 더붙게 없는 일이었다. 그만한 준비 없이 연극을 꾸몄을 사내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었다.

밤새 잠을 설쳤다. 나는 누나가 누워있는 아랫목으로 가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내 마음속에 철조망을 치기가 그렇게 어려울수 없었다. 난 누난 사랑했었다. 그 고운 사람의 감정은 그대로 지켜나가고 싶었다. 괴롭지만 상쾌한 아침을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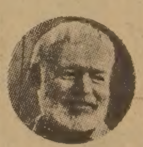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

歷史로 본 이 週의 人物들

□美作家 헤밍웨이 死去
□獨作家 헤세 出生
□佛思想家 루소 死去

◇루 소

◇헤 세


◇헤밍웨이

헤밍웨이 高卒후 1次世界大戰 參戰…「노인과 바다」로 노벨賞

헤세 新浪漫主義的 경향의 作家로 출발해 平和主義 제창

루소 제멋대로 자라나 家庭·社會생활 失敗…名著남겨補償

▲美 作家 헤밍웨이 死去 (1961·7·2)

어네스트·헤밍웨이는 일리노이州의 의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후 노동, 기타의 직업을 전전하였다.

1차 세계대전중 지원하여 야전위생대로 프랑스에 갔었고 후에 이탈리아 전선에서 부상당하였다. 전후 통신원으로 파리에 있으면서 에즈라·파운드의 영향을 받아 처녀 작품집과 단편집을 발표하였다. 1926년 귀국하여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쾌락추구와 환멸을 그린 「해는 또다시 뜬다」를 발표하였고 또 이탈리아 전선에서의 체험을 묘사한 전쟁과 연애의 소설 「무기여 잘있거라」를 발표하여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단편및 장편에 걸필을 발휘하여 후의 작가에 영향을 미친바 크며, 스페인 내란에서 취재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인기를 얻었다. 「노인과 바다」로 퓰리처상을 받았고 이어 1954년에는 노벨文學賞을 받았다. 그는 1961년7월 2일 엽총에 의해 자살에 가까운 격렬한 죽음으로 삶을 마쳤다.

▲獨 作家 헤세 출생 (1877·7·2)

헤세는 1877년7월2일 남부독일의 시바벤지방의 카르부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목사, 모친은 선교사의 딸로서 동인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修道院 부속학교를 중퇴한 후, 시계공·서점 점원등으로 일하면서 바젤大學에서 청강하여 회고적 抒情性이 높은 한 신 낭만주의적 경향의 작가로서 출발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깊이 내면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인간존재의 근원에 배반하는 이원성과 대결하였으며 다시 서유럽문명에 대한 회의와 비판에서 東洋精神의 신비적 조화를 동경하여 魂의 자유와 인간성의 고귀함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였다. 1904년 비로소 그의 文名을 떨치게 한 초기의 가작 「페터 카멘친트」를 발표하면 해, 새로운 처와 더불어 스위스의 보덴湖畔으로 이주하여 1923년 스위스의 국적을 획득한다.

그는 文學외에 회화나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순수한 예술가이나, 1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비정치적인 평화주의를 견지·고창하게 되었다. 1946년 노벨상 및 괴테상을 받았다. 대표작에는 「수레바퀴 아래서」 「시다르타」 「황야의 늑대」

▲佛 思想家 루소 死去 (1778·7·2)

장·자크·루소는 18세기 초엽인 1712년에 프랑스家系의 혈통을 받아서 칼빈敎徒가 된 이삭·루소의 아들로 제네바에서 태어났다. 루소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다. 그의 괴팍한 성미는 그가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늘 혼자서 어린시절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고독의 열매인지도 모른다. 더우기 엉뚱한 환상을 하는 아버지는 동네 사람과의 심한 싸움끝에 마을에서 쫓겨났다.

이리하여 고아와 다름없이 된 루소는 고아원등을 전전하면서 제멋대로 자랐다. 16세가 되어서 생계를 위해 프랑스로 갔으며 리옹에서 가정교사 노릇도 하고 또, 베니스 駐在大使의 비서노릇도 해 보았으나 적응하지 못했다. 가난과 초라함에 찌들어서 피곤한 루소에게 상냥하나 무식한 처녀 테레즈·르바쇠르를 만나 유일한 위안을 얻고 둘 사이에 5남매를 두었으나 가정을 돌보지 않아 그들은 모두 고아원에 맡겨지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개인의 성공으로도 뒤틀려졌고 아버지와 남편으로도 모두 실패하였다. 이런 가운데 그는 도시생활마저 실패하고 만년에 파리북쪽 에비네부인 집에서 자연생활·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그의 모든 大作들이 失敗에의 보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그가 남긴 저서만이 빛난 유산으로 남은 채 1778년 7월2일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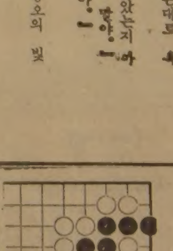
바둑

死活의 妙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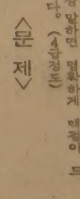
○白先으로 黑을 잡아라

▲힌트=전체 黑을 무조건 잡아야 한다. 그 이상 말하면 명확하게 해답이 드러날 것이다. (4급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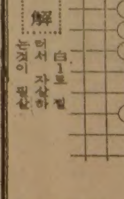
〈문제〉



正解 白1로 집어서 자살하는것이 필살의 수다. 黑2 단수로 몰면 白3으로 끊어 黑은 허무하게 최후를 맞는다. 그뒤 黑이 4점을 따내면 白3을 앞으로 끊어 당긴다.


〈1도〉

失敗 白1로 붙이는 것도 수지만 黑2로 절반되몰아 黑6까지로 은 살게되니 결국 실패다.


〈2도〉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全大統領·李光耀수상 會談

經濟「水平分業」등 중점討議

安保外交 협력方案도

어제 싱가포르到着 6·5제의등 平和統一 노력 설명

【싱가포르=1日=尹國炳특파원】 아세안 5개국巡訪의 세번째 방문국인 싱가포르에 도착, 공식일정에 들어간 全斗煥 대통령은 도착 6시간30분만인 1일 저녁 7시(이하한국시간) 숙소인 영빈관에서 李光耀 싱가포르수상을 접견한뒤 곧바로 韓·싱가포르 수뇌회담에 들어갔다.

★관련기사2면

양국首腦는 이날 회담에서 東北亞및東南亞의 현정세를 포함, 동아시아지역의 평화 및 안정유지와 관련한 문제등 안보외교적인면에서의 광범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한국과 싱가포르가 모두 신흥공업국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장차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력과 제휴관계를 유지해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한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首腦는 양국이 경제협력방안과 관련, 앞으로 합작투자를 비롯해 경제적분야에서의 水平的분업등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수뇌는 이지역의 정세를 평가하는 일반적 검토과정에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정세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全대통령은 1·12, 6·5제의등 우리정부의 南北韓평화통일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의 韓·싱가포르 수뇌회담은 李光耀수상이 지난79년 우리나라를 방문, 양국의 우호증진과 상호 협력방안의 길을 열어놓은바 있어 지극히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全대통령과 李수상은 모두 汎세계적인 정치이념과 戰略觀을 지닌 지도자여서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된 회담시간을 훨씬 넘기면서 의례적인 대화를 떠나 모든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李雄熙 靑瓦臺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수뇌회담에 따른 공동성명은 2일상오 발표될것으로 알려졌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싱가포르대통령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亞洲平和유지에 相互협력

工業化위한 産業보완사업 增進도"

韓·말聯 共同성명, 政策협의회 年例개최

【콸라룸푸르=1日=尹國炳특파원】 全斗煥 대통령과 후세인·온 말레이지아 수상은 1일상오 11시30분(이하한국시간) 양국首腦회담을 결산하는 20개항으로된 공동성명을 발표, 東北亞와 東南亞의 평화와 안전이 상호 진밀한 관계에 있으며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東北및 東南아시아의 발전과 경제개발에 도움이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지역에서 요구되는 평화와 안정확보를 위해 상호 노력할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이 2泊3日간의 말레이지아 방문을 마치고 1일낮 싱가포르로 떠나기에 앞서 발표된 이 공동성명은 또 『양국이 경제적으로 상호보완관계에 있음을 인정, 기술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공업화를 위한 산업보완사업증진을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商工장관이 통상및 산업문제에관해 정규적인 협의를 갖기로 하는 한편 양국고위관리들간의 政策協議會도 年例的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全대통령이 에너지 자원, 木材, 고무, 朱錫등 천연자원의 안정적공급에대한 말레이지아의 협력에 謝意를 표명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원의 원활한 공급확보에관해 말레이지아가 한국에대한 지원을 계속할것이라는 보장을 획득했다』고 밝히고 『양국이 천연자원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증진하기위해 양국고위 관리간의 旣存정책협의회테두리내에서 상호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南北대화에 대해 『全대통령이 한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정부가 경주해온 긴장완화및 평화정착노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유일한 현실적인 방도는 「1·12제의」와 「6·5제의」대로 南北韓최고 책임자간에 직접 회담을 갖는 것임을 강조했으며 후세인·온 수상은 全대통령의 이같은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문제가 南北韓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말레이지아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성명은 후세인·온 수상은 유엔헌장의 보편성원칙에 입각한 한국정부의 南北韓 유엔가입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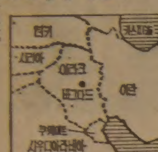
全大統領 아세안巡訪 오늘의日程

(한국시간) ▲상오 李光耀수상과 친선골프 ▲주롱工團관리청 방문 ▲하오 ▲기념식수 ▲교민리셉션 ▲공식만찬 ▲한국大使관저 ▲리셉션

政府·이라크와 領事관계 수립

이라크總領事부임

정부는 1일 中東의 이라크 공화국과 總領事級 領事관계를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金在旻외무부대변인은 양국간의 領事관계가 지난4월15일자로 합의되었으며 초대 駐韓 이라크 총영사로 리아드·알리·사부·알아자위 씨가 지난 6월28일 부임했다고 밝혔다.



이라크수도바그다드駐在한국총영사관의 개설시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韓·말聯 軍事기술協力 합의 國防장관

【콸라룸푸르=1日=尹國炳특파원】 全斗煥 대통령을 수행중인 周永福국방장관과 하지아부·하산 말레이지아국방장관대리는 30일하오 국방성에서 韓·말聯국방장관회담을 갖고 兩國간의 현안과 군사기술협력에 합의했다.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全斗煥 대통령내외가 1일 싱가포르대통령궁에서열린 환영식에서 오·김·생 대통령권한대행의 안내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 1日聯合=特】

전국 다시 장마圈에

서울·嶺西지방 豪雨주의보

내일까지 비…예상降雨量 80~百50mm

태풍 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남쪽에서 주춤해 있던 장마전선이 30일 중부이북까지 북상,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 지역적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다.

중앙관상대는 1일 하오4시를 기해 서울 경기 강원 영서등 4개지역에도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주의보가 발효중인 지역의 예상강우량은 80~1백20mm. 또 이날 상오8시에는 충청남북도 및 영·호남지역에도 호우주의보를 내렸는데 이 지역의 예상강우량은 80~1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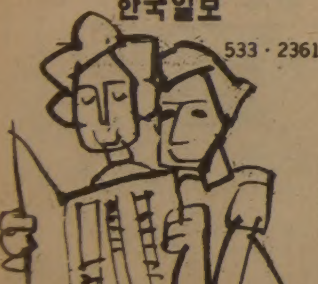
한편 30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리기시작한 비는 1일하오1시현재 瑞山이 91·4mm로 최고 강우량을 보였고 西歸浦 76·2, 釜山65、晉州57·2、忠武32·2mm로 남부일원에 비교적 많은비가 내렸다.

중앙관상대는 본격적인 장마전선이 형성돼 오는 3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 내린후 4일께 일단 비가 멈추었다가 7일께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인천44·8 ▲서울47·1 ▲수원71·4 ▲춘천21·1 ▲서산91·4 ▲대전41·2 ▲청주28·4 ▲속초3·5 ▲강릉4 ▲대관령6·9 ▲울진1 ▲울릉도0·6 ▲군산29·8 ▲전주24·7 ▲광주81·3 ▲목포15·4 ▲여수15 ▲제주30 ▲서귀포76·2 ▲추풍령14 ▲대구16·8 ▲포항12·5 ▲진주57·2 ▲충무32·2 ▲부산65 ▲울산49·6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533·2361



11회 鳳凰大旗고교野球

전국高校팀 總出戰 8월6일부터 激突

서울運서 熱戰18일…放學동안 펼치는 白球의 드라마

每게임對陣 추첨제로 결정

1·2回戰 추첨 7월4일 하오2시 本社13층회의실서 실시합니다

社告

제11회 鳳凰大旗쟁탈 全國高校野球大會(한국일보·日刊스포츠·대한야구협회共同主催·文敎部후원)가 오는 8월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서울운동장서 열리게 되었읍니다. 국내 고교야구팀들이 총출전, 파란과 이변의 드라마를 펼쳐지는 盛夏의 祭典, 鳳凰大旗고교야구는 금년도 고교야구의 실질적인 최강을 가려내는데 의의가 있읍니다. 더우기 鳳凰大旗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는 매회 대진을 추첨하는 독특한 대진방식을 채택하고있어 우승후보팀들이 초반에 격돌하는등 예측불허의 박진감이 넘쳐흐르고 있읍니다. 대회 1·2회전 대진 추첨은 오는 7월4일(土)하오2시 한국일보社 13층회의실서 갖게됩니다. 해마다 8월 방학이면 밀어닥치는 鳳凰구장의 함성과 熱風을 몰고 초록鳳凰大旗(우승)·주홍鳳凰大旗(준우승)·자색鳳凰大旗(3위)를 차지할 주인공이 어느팀이 될는지 벌써부터 팬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읍니다.

금년도 高校野球의 실질 最强가려 初盤부터 豫測不許의 박진감 펼듯

◇대회 요강

▲기간=8월6일(木)~8월23일(日)

▲장소=서울운동장 야구장

▲경기방식=매회대진추첨 토너먼트

▲대표자회의=7월4일(土)하오2시 한국일보 13층 회의실(대표자1인)

▲대진추첨=4일하오 대표자회의 직후

한국일보社 大韓野球협회 共同주최·文敎部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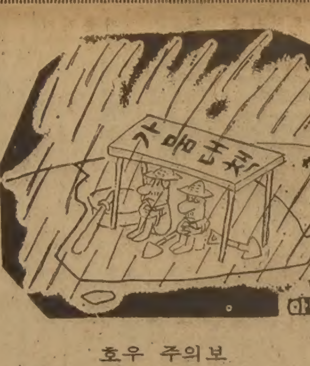
上半期輸出 19億弗

1일 상공부가 집계한 6월중 수출실적은 19억5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2·5%가 늘었으나 수출신용장내도액은 13억8천9백만달러로 작년6월보다 7·9%가 늘어났을뿐이다.

수출은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있으나 수출의 선행지표인 수출신용장내도액은 5월부터 둔화되고있어 앞으로의 수출전망은 어두워져가고있다.

그런데 전년6월은 사회혼란으로 수출신용장내도가 극히 저조한 시기여서 금년6월의 신용장내도액이 7·9% 증가에 그친것은 앞으로의 수출전망이 밝지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社會漫評



호우 주의보

地平線

50년이상 미군이 쓰고있는 낡은 38구경 및 45구경권총이 사라지고 성능이 뛰어난 9mm권총이 새로 등장한다. 9mm권총은 우리나라에선 흔하지 않지만 탄약규격이 달라 2차전때 고생한 나토에선 이미 일반화된 권총이다. 미국방성은 45구경권총 41만8천정, 38구경권총 13만6천정을 서서히 9mm권총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흔히 45, 38구경권총이라고 할때 45, 38하는 것은 1백분의 45, 38인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중량은 0.5~1.3kg이며 유효사정거리는 5~20m이므로 유효거리 50m인 9mm새권총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알수있다. 권총=피스톨이라는 말은 1500년대에 권총을 발명한 이탈리아사람 카미로·빌데리가 살던 피스톨자에서 나온말이다. 권총에는 총신후부에 연근모양의 탄창을 끼는 리볼버와 총자루 내부가 탄창으로 되어있는 오토매틱이 있다. 리볼버는 1835년 미국의 콜트가 특허를 낸것으로 유명하다. 새뮤얼·콜트는 16세때 조그마한 배위에서 나무로 된 회전총의 모형을 만들어 특허를 받았다. 이콜트총의 인기가 높아 주문이 밀려 그는 하룻밤새에 큰부자가 되기도 했다.

▼권총하면 일반인에겐 무서운 흉기이고 잘못갖고있으면 불법무기로 처벌까지 받으나 어린이 장난감에도 흔하고 서부영화에선 빼놓을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친근감을 줄때도 있다. 또 007영화가 많이 공개된 뒤 소음권총, 마취 권총을 모르는 이가 없다. 마취총은 지난번 곰사냥때 동장만하고 쓰지는 못했는데 외국에선 경찰관이 휴대하는 신무기이기도하다. 사람을 졸도만 시키고 죽이지 않는 권총도 나와있다. 원통형의 특수한 나무조각을 발사시켜 타박상을 주나 피부를 뚫지 않게하는 방법이다. 고무총알을 북아일랜드에서 쓴결과 마찬가지 효과를 봤다는 말도있다.

▼지금은 권총을 군대에서 보다 경찰에서 더애용한다. 또 권총의 나라 미국에선 권총범죄가 늘고 있다. 미국의 한해 살인사건의 51%, 강도의 34%, 강간의 25%가 권총범죄라고 하니 짐작할만 하다. 암살사건에 꼭나오는것도 이 권총이다. 문명의 이기이고 호신용으로 발명된 권총의 성능이 더좋아지는것은 반갑지만 악용안되는 조치도 함께 나와야 될성싶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43
은 : 온스당 US 9.3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교포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화랑 태권도학교

서정길(7단)

● 전 한양대 태권도 대표선수
● 전 공군첩보요원 지도사범
● 전 송무관 중앙도장수석사범
● 전직 대통령경호실 경호관, 경호요원 지도사범
● 현 카나다태권도협회 이사, 한인태권도협회 부회장

〈초대의 말씀〉

금번 저희 화랑태권도장을 개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교민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7월10일(금) 오후8시
장소 : 화랑태권도장(676 Sheppard Av.W.)
(one block west of Bathurst)

사범 서정길
☎ : 630-3095

외대동창야유회 공고

동문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여름 야유회를 갖고저 하오니
동문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동반 하시고 전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 시 : 1981년7월19일(일요일)
장 소 : 서니부룩공원(Serena Gundy)
예년과 동일

※점심은 각자지참 바랍니다.
(불고기및 드링크만 동문회에서 제공합니다.)

연락처 : 497-9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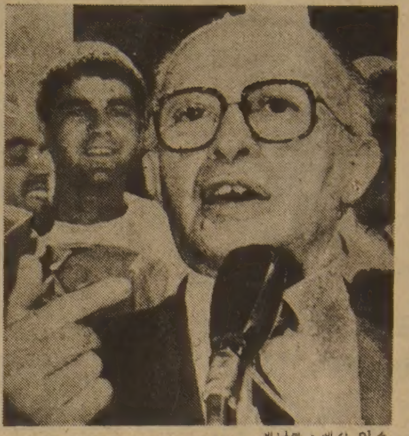
외대동창 동문회장 오세희

베긴, 새 聯政구성 確言

국가종교黨등 협조約束

兩大정당 過半엔 실패

페레스, 開票완료때까지 聲明보류



◇勝利주장하는 베긴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이 1일 총선개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그가 이끄는 집권 리쿠드黨의 승리를 주장하며 재집권하겠다고 선언하고있다. 【텔아비브1日AP電送=聯合】

【텔아비브1日AP합=聯合】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은 1일 총선개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그가 이끄는 리쿠드黨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새정부를구성할것이라고 말했다.

베긴수상은 그의 리쿠드黨과 야당인 노동당이 백중세를보이고있는 가운데 국가종교당등 잠재적 연정 참여정당대표들과 긴급협의를 가진후 리쿠드黨이 또다시 원내 절대다수세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베긴수상의 이같은 주장은 그가 국가종교당과 아구다·이스라엘黨등 소수정당의 연정참여약속을 확보했음을 뜻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컴퓨터집계결과 이들 두군소정당은 모두 11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총투표수의 25%가 개표완료된 이날 정오현재 이스라엘의 보도기관들은 兩大정당의 확보의석에 대해 서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스라엘 라디오방송은 총120석의 의회의석중 50석대 48석으로 노동당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TV방송은 49對49로 백중세를 점치고 있다.

兩大정당이 의회과반수의석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이들 양대정당의 집권여부는 소수당과의 연정여부에 좌우되게 되었는데 컴퓨터집계는 리쿠드黨이 소수당 대부분의지지를 얻어 재집권할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개표초반의우세로 집권의사를 표명했던 시몬·페레스노동당당수는 개표진행결과 노동당과 리쿠드당이 백중세를 보이자 개표가완료될때까지 추가성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페레스당수는 앞서 노동당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연립정부를구성할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국가종교당등이 주장하고있는 리쿠드黨과의 거국내각구성제의는거부했다.

호翁, 左翼단체 할크黨 非難

【테헤란30日AP=聯合】이란회교지도자 호메이니옹은 30일 모하마드·베헤슈티대법원장등 72명의 성직자, 정치인들이 사망한 집권회교공화당(IRP)본부 폭파사건과 관련, 바니·사드르전 대통령지지세력이며 좌익지하회교단체인 무자헤딘·할크黨(인민시자군)을 강력히 비난했다.

호메이니옹은 테헤란방송을 통해 보낸 메시지에서 무자헤딘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인민을 위해 투쟁한다고 주장하는 이 무지한 도당들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일하는 7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말하고 이들이 강대국들에 고용돼 IRP당사를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極東危機대처」討議

日 防衛費증액엔 異見

美·日 國防相회담서合意

【워싱턴29日發=聯合】미국과 일본은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방위비증액문제에 관한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양국이 ▲앞으로도 이문제를 계속 협의하며 ▲극동지역에서의 위기발발시 양국의 공동대처방안을 절충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캐스퍼·와인버거 미국방장관과 오오무라·죠오지(大村襄治) 일본방위청장관은 이날 3시간동안 회담, 국제정세·일본방위력증강문제·극동지역의 군사정세·주일미군경비의 분담문제등 공동관심사를 협의했다.

회담이 열리자 와인버거장관은 극동군사정세를 언급하는 가운데 ▲소련이 극동지역에 예상보다 많은 SS20중거리미사일과 초음속 백파이어폭격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북한군사력도 경시할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있다고 지적했다.

「방위력增強」實證보이라

앨런보좌관, 오오무라에 불만표시

【東京1日=宋孝彬특파원】앨런 美 대통령 안보담당특별보좌관은 1일 상오6시(현지시간 30일 하오5시)백악관에서 일본 오오무라(大村)방위청장관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美日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한층증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이상 일본정부는 그실증을 보여주기바란다』고 말하여 美日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방위증강과 역할분담에 소극적인 스즈키 정권에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

日 방위증강소극적 비난

上院軍事委長

【워싱턴30日發=聯合】美上院군사위원회 존·타워의원(共·텍사스)은 30일 일본의 소극적인 방위력증강노력을 맹비난하고 일본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하는데 정책상의 최우선권을 부여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首相에 피처럴드

에이레議會 선출

【더블린30日UPI=聯合】에이레의 제2당인 피네·가엘당당수 가렛트·피처럴드前외상(55)이 30일 의회에서 실시된 수상선거에서 제1당인 피아나·파일당당수인 찰즈·호히 현수상을 3표의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에이레의 새수상으로 선출됐다.

부시, 마닐라訪問중

아세안과 連鎖會談

【마닐라30日AP=聯合】페르디난드·마르코스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키 위해 필리핀을 방문중인 조지·부시美부통령은 30일 말라카낭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로널드·레이건미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날의 회담과 서한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얼굴

상냥한 外貌에 뛰어난知能

에이레 新任首相 피처럴드

【뉴욕30日UPI=聯合】에이레의 신임수상 거렛트·피처럴드前외상(55)은 단정하고 상냥해보이는 외모에 동료와 정치적인 적들까지도 깜짝 놀라게할만한 지능을 소유한 인물이다.

그가 처음 취직했던 국립항공사 사무직을 그만둔후 그자리를 메우기위해 3명의 새로운 사무직원이 필요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피처럴드 신임수상은『호인』으로 평판이 나있으며 일찌기 정계에투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5년에야 의회에 진출했다.

그는 상원의원에 당선된후 당시 선거에서 세차례 패배한후 위기에 처해있던 피네·가엘당(통일 에이레당)에 입당했다.

그후 8년만에 피네·가엘·노동당 연립내각을 출범시킨 리엄·코스그레이브수상이 그를 외상으로 기용했다.

그는 변호사와 신문기자·경제평론가로도 활약했으며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그는 또『하루를 48시간으로 만든사람』이라는 평판과 함께 유럽전역에 널리알려진 인물이다.

메아리

은은한 스님의 독경소리는 심산유곡 山寺에서나 들려 오는것으로 알았다. 목사님의설교는 엄숙한 교회당안에서만 들을수 있었다. 지금은 흔히 들을수 없지만 노방전도도 육성으로 행인의 마음을 끌어 당겼다.

세상은 크게 달라졌다. 대로를 걷노라면 스님의 독경소리가 녹음으로 거리에 흐른다. 버스터미널의 텔리비전 화면은 성직자의 설교를 영상과 음향을 통해 들려준다. 「電子宗敎」시대가 열린 것일까.

「제3의 매체」라는 비디오 시스팀은 새로운 전파시대의 章을 우리 생활에 열어 주었다. 컬러TV 방영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VTR시대가왔다.

비디오 패키지는 영화나 텔리비전과 사촌관계쯤 되지만 그 전달 대상이 집단이나 대중이 아닌 개인 또는 소수인이기 때문에 영향력과 호소력이 한층 강하다.

VTR가 우리나라에 첫선을 보인것은 불과몇년이 안된다. 처음「기술교육용」으로 도입한 것이 엉뚱하게「오락·퇴폐」용으로 더 보급되어 말썽을 빚었다. 그렇다고 [illegible] 만을 들춰낼 필요는 없겠다.

2년전 서울대학교에서 폐쇄회로 V를 부화학실험 강의를 실시하여 효과를 올리기도 했다. 일류 호텔에선 VTR로 고객에 서비스를하는 경우도 생겼고 문화재나 유명인의 자서전이 VTR에 담겨졌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토플러는 비디오 시스팀의 등장이 현대의 매스 미디어 문화를 크게 변화시킬것으로 내다 보았다. 多衆문화가 소수집단의 개성적인 문화로 탈바꿈하리라고 전망했다.

선택의여지가 없는 텔리비전 프로에 입맛 떨어진 사람들이 VTR로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프로를 보고 즐길수있기때문이다.

VTR의 강점은 무엇보다 교육적 기능에 있다. 서울시내 어느 국민학교에서 국내 첫 컬러TV 학습방송을 각교실에 방영했다고 한다. 「전자교육」시대가 궤도에 올라감을 실감케 한다.

오늘의 첨단과학과 교육의 결합이 앞으로 어떤 樣相으로 전개되고 그 효과는 어떻게 드러날지 주목된다.

敎育 비디오

中共, 중심課題는 經濟建設

黨중앙위宣言 繁榮과 위대한 民主主義지향

【北京30日AP합=聯合】중공당은 30일 근대적이고 평화적이며 번영된 중공의 청사진을 담은「중앙위결의안」을발표, 사회주의만이 중공을 살릴수있다고 규정하고 중공당의 모든 과업은「경제건설」이라는 중심과제에 봉사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1921년 60명의 당원으로 출발한 중공당창당60주년 전야에 나온 이결의안은▲분열정치가 아닌 번영▲보다위대한 민주주의 ▲인간이아닌 법의지배 ▲私기업의 확대및 정신혁명 ▲문화발전및 종교적자유등을 중공의 주요정책목표로 천명했다.

黨11기中央委제6차전체회의(6中全會)에서 채택된 3만5천단어의 이 결의안은 毛澤東이 대약진운동과文化革命에서 과오를 범했으며 毛의 후계자였던 華國鋒前黨주석도 毛의 그릇된 정책을 고집하고 과오시정을 방해하는등의 失政과 非行을저질렀다고 비난함으로써 中共의새지도층이 毛澤東思想으로 대표된 혁명질서와 사실상 결별하고 실용주의노선에 입각한 경제현대화추진의 전략적대전환을 시작했음을선언했다.

번영위한 大長征을

胡耀邦취임사

【北京1日=聯合】중공黨의 새주석으로 선출된 胡耀邦은 1일중공당 창설60주년 기념식에서행한 취임사에서 『번영의 미래를향한 大長征에나서자』고 선언했다. 그는또 毛澤東을 위대한 국가영웅이라고 찬양했으나 좌익영향의 잔재를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념식장에서 胡의 옆자리는 華國鋒을 제치고 그를 주석직에 앉힌 鄧小平부주석이 자리했다.

鄧小平의 5年攻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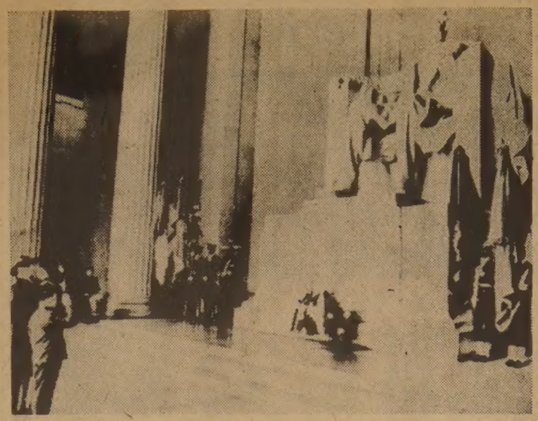
「1中全」에서 「6中全」까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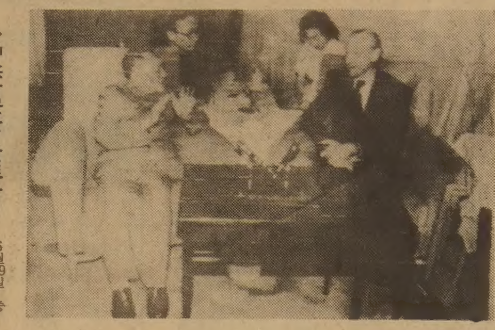
본격적인黨·政분리체제로

後繼후보4명 모두要職에

"서두르지않고 끈기있게…" 特有의 솜씨발휘



◇링컨상앞에선 鄧小平 鄧小平중공당부주석이 79년 1월링컨기념관을 방문중 링컨상앞에서 거수경례를하고있다. 【UPI】



◇中共방문한 발트하임 6월19일 중공을 방문한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과 환담을나누고있는鄧小平 【AP】발송

6中全會에서 의결된 黨요직개편으로 中共은 본격적인 黨·政분리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黨의 胡耀邦, 국무원의 趙紫陽과함께 鄧小平은 스스로 軍을 통솔하게 됐다.

鄧小平은 일찍부터 黨·政분리를 내세우며 집단지도체제를 역설해왔다.

鄧의 黨·政분리주장은 80년9월 華國鋒으로부터 국무원총리직을 접수한데 원용되기도 했지만 직접한이유는 자기路線의 후계자를 심는데 있을것이다.

鄧이 후계문제에 남다른 신경을쓰는것도 무리가 아니다.

작년여름부터 鄧小平은『나는 85년까지는 모든공직에서 은퇴하겠다. 뒷일은 젊은 사람들이 맡아야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대만의 중공전문가들은 鄧小平이 자신의 직계후계자로 胡耀邦, 趙紫陽과 함께 黨서기겸 부총리 萬里와 이번6中全會에서 새로黨서기로 입명된 全人代 상무위부위원장 習仲勳등 4명을 점찍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黨의 胡, 政의 趙로 구성되는 胡—趙쌍두마차에 萬里와 習仲勳이 힘을 합해 中共을 이끌고 나가게 하려는 구상이라는 얘기다.

원로 정치인들은 현직에서 사임하여「고문위원회」를구성하고 자신은 陳雲과 함께「黨務는 鄧이, 경제는 陳이」맡는다는 식의 원로정치를펴다가 원로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면 자연스레 實踐派중심으로 세대교체는 이루어진다는 계산인것이다.

이같은 鄧의 구상은 6中全會에서는 구체화 되지못했다.

퇴역을 거부하는 葉劍英, 李先念등 원로들과 이들을받치고있는 반대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6中全會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는 實踐派의 성과가 적어보인다. 華國鋒이 부주석으로 강등되어 서열6위로 밀려나고 胡耀邦이 주석자리로 진출하는한편 趙紫陽이 서열4위의 부주석으로 올랐을뿐 나머지 상무위원들의 서열에는 변동이 없었고 정치국원이나 중앙위원의 교체도 없었다.

당초에는 6中全會에서「고문위원회」가 신설되어 葉劍英, 鄧小平, 李先念, 陳雲등 고령의 당직자들이 사임하고 신진인사들을 대거기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파다했다.

華國鋒의 거취에 대해서도 추측이 구구했지만 결국 최대한의 타협적대우를 해준셈이되었다.

그러나 6中全會에서 鄧小平은「서두르지않고 끈기있게 밀고 들어가는」특유한 솜씨를 다시한번 보여줬다.

鄧은 黨부주석으로 재복권된후 지난5년간 차근차근히 凡是派공략에 힘을 기울여왔다.

야금야금 상대의 발밑을파먹어가는 鄧小平의전법은결국 華國鋒을 넘어뜨리고 만 것이다.

毛澤東에 대한 재평가문제도 그렇다. 6中全會가 채택된「건국이래의 약간의 당의 역사적 문제에관한 결의안」의 초안에대한 토의는 이미 작년10월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어왔다.

4천명을 대상으로한 제1차초안, 1만명을 대상으로한 제2차초안등이 차례차례 전국에 배포된후 그반응은 黨서기처로 모아졌다. 그것은 攻略의 타협점을찾는 鄧小平의 면모를 알려준다. 鄧小平의 끈기는 6中全會 개최여부를 둘러싸고 凡是派및 軍원로들과 의견대립이 있었을때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작년 가을 鄧派는 4인방재판을 준비하고 毛澤東격하 움직임을 세차게 일으켰다. 그때 추위를 피한다는구실로 廣州로 내려간 全人代상무위원장 葉劍英은 北京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했다. 葉의 불참으로 黨의 모든 공식행사는 구색이맞게 치러지기 어려운지경에 빠졌다.

이에 鄧小平은 葉劍英을중심으로한 李德生, 許世友등 軍원로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끈기있게 전개했다.

지난2월초 舊正에 즈음해서는 葉劍英및 劉伯承, 徐向前, 聶榮臻등 軍원로및 정치국원의 자택을 黨中央, 군사위, 국무원의 요인들로하여금 차례로 방문케하는 설득작전을 펼쳤다.

葉劍英은 드디어 지난 6월3일 행해진 國父 孫文의 미망인 宋慶齡의 장례식에처음으로 참석했다. 그것은 鄧小平과 葉간에 타협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는 추측을불러일으켰다.

鄧과 葉간의타협내용은 實踐派가 毛澤東격하운동을 중지하는대신 華國鋒의 주석직 사임을 양해했다는것으로 집약된다.

중국공산당 수립 6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30일 발표된「毛澤東평가선」에서도 毛가 공화국수립초기에 기여한 공로는 현저한것이며 大躍進운동과 文革의 실수는 2차적으로 규정짓고 있다.

「당시에관한 결의」는 또 사회주의, 무산계급專政, 마르크스—레닌주의및 毛澤東사상등 4가지를 견지한다는 4항기본원칙을 확인함으로써 實踐派의 脫毛일변도를 우려하는 凡是派들을 무마하는 제스처를 썼다.

30일 발행된 北京신문들은 6中全會 결과를 대서특필했으나 華國鋒의 주석직사임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않고있다.

전날밤 新華社통신이 華國鋒은『좌경화의 실책과 개인숭배사상을 고취하는등 과오를저질렀기때문에 실각했다』고 보도한것과비교할때 중공언론의 침묵은 華國鋒추종세력을 자극시키지않으려는 배려때문인것으로 보인다.

3천8백만 당원중 반수가량은 文革당시 입당한인물들이다. 實踐派가 비록 黨中央을 장악했다고는하지만 지방黨조직과 지방군구에 뿌리깊은 문혁세력을다스리는 일은 다난할 것이다.

그것은「타협의 명수」鄧小平이 12全大會로넘긴 과제중 하나다.

【朴永錦기자】

中共黨서기처書記 習仲勳

얼굴

海外선 생소해도 國內지명도높은 軍事通

反黨혐의에 연루 肅淸되었다가 捲土重來

29일 폐막된 중공당제11기6中全會결과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중의 한사람은 막강한 권력의 11人서기처서기에 새로입명된 前廣東省黨제1서기 習仲勳. 그는 이번에「지방」에서「중앙」에 재진출했을뿐 아니라 당의 모든 일상업무를 장악하는 서기처에 들어감으로써「권력의핵」에 더욱 근접하게 되었다.

6中全會신문공보는 黨총서기후임을 따로 밝히지 않았기때문에 胡耀邦이 아직 총서기로 남아있는게분명하지만 習의 당서기입명은 鄧小平의 후계자양성계획과 긴밀한 상관관계가있는것이다.

지난6월11일 개최된 중공제5기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제19차상임위원회가 당중앙정치국의 결정에따라 習을부위원장, 彭眞이 겸직하던 법제위원회주임자리에앉힐때부터習의中央진출은 눈에띄었다.

習은 서방에는 비교적생소한 인물이나 중공정계에서는 지명도 높은 실력자.

習은 올해 69세. 陝西省富平출신이다. 일찌기 군에 투신한 그는 陝北紅軍의 간부로 활약했으며 공산군이 중국대륙을 제패한 초기엔 西北區書記및 제1야전군 정치위원으로서 당시만해도 그의지위는 鄧小平, 聶榮臻등과 맞먹는것이었다.

그는 중공정권수립후 당중앙에 진출, 52년 선전부장이란 요직에 임명됐고 승세를 거듭하여 국무원비서장(54년), 8기당중앙위원(56년), 국무원부총리(비서장겸임·59년)까지 올랐었다.

그러나 62년 군시절상관이었던 高崗의 反黨혐의에 연루, 많은 西北系 군간부와함께 毛澤東派에 의해 숙청됐다. 그후 77년 鄧小平에의해 명예회복 될때까지 15년동안「勞動改造」와 감옥생활을 치렀다.

習은 복권후78년 韋國淸이 제1서기로있던 廣東省 제2서기에 임명되었고 그다음해인80년제1서기로 승진했다. 또한 同年 全人代부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鄧小平사단의 핵심인물의 한사람으로 각광을 받기시작했던것이다.

習은 鄧과는 원래 깊은 인간관계가 없는 사이다. 그러나 鄧처럼 文革때 가장 박해를당했던 인물일뿐아니라 鄧에의해 복권된후 鄧의 실용주의 정책의 열성적인 지지자가되었다.

習은 廣東省에 무역자유지역을 설치하는등 중공의 대외개방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習이 鄧派대열에 들게된것은 지난날 중공군에서 중요위치에 있었던「군사통」으로서 높이 평가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春數기자】

SunLife OF CANADA

"여성보험인등장"

Sun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Congratulates Kim Shinmyong on her appointment as sales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s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는 종전과는 달리 「생명보험」 뿐만이 아니라 교육, 연금, 주택, 사업금융 모기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읍니다.

이질 문화권의 캐나다 대륙을 딛고 새꿈을 이룩하려는 이민생활에서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는 보험에 관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성심 성의로 여러분의 곁에서 도와드리겠읍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들에 일익번영이 깃들기를 앙망 합니다.

김 신 명 드림

김 신 명

취 급 보 험

- 생명보험
- 교육보험
- 연금제도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R.S.P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B)922-3111 R)439-8885

美國에「한국精神의 뿌리」심는일 보람
첫萬神굿선 작두위서 칼춤

인터뷰

"우리巫俗 깊숙이 배우러왔어요"
美서 한국巫俗學者로 활약중인 蔡熙娥씨

한국 巫俗학자로, 샤먼으로 미국인들을 사로잡고있는 蔡熙娥씨(41)가 우리나라 巫俗의 眞面目과 접하기 위해 귀국했다. 蔡熙娥씨는 지난 23일 우리나라 民俗·巫俗학자, 국문학자등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내림 굿판을 벌여 「20년만에 처음보는 무당」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그는 黃海道 토속 굿의 第一人者로 꼽히는 金錦花씨를 「신어머니」로 해 내림굿에서 참석자들을 감동의 境地로 이끌어 굿이 끝난후 눈물을 줄줄 흘리게 만들었다. 이자리에 있었던 崔鍾民교수(서울大 국악과)는 「그동안 굿을 많이 보고 다녔는데, 그날처럼 연회자와 참석자들이 一致해서 神이 오르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하고 蔡熙娥씨를 「놀라운 샤먼」이라고 평하고있다.

蔡씨는 京畿여고와 서울大국악과를 졸업하고 66년에 渡美, 워싱턴대학에서 세계 민속음악과 무용을 공부했다. 그가 배운 세계민속예술은 각 種族이 지녀온 祭典的·儀式的인 성격을 띤 춤과 노래였다. 73년에는 동양예술학원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치다가 캘리포니아대학의 초청으로 대학원에서 세계민속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에게 한국무용을 가르치는 「교수겸 학생」으로 살았다.

『제가 「샤먼」의 첫門에 들게된것은 캘리포니아 대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피·인디언들의 전통 儀式인 힐링·아트(healing art)와 접했을때였어요. 힐링·아트를 영화로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이떨리고 이세상의 내가아닌 다른어떤이가 내속에 들어와 힐링·아트·세리모니와 일치되는 강렬한기분에 싸였지요. 그 길로 저를 초청해준 교수에게뛰어가 제기분을전했고, 그 교수는 즉석에서 「너는 샤머니즘을 공부하라」고 전환의 계기를 주었지요』

그는 그후 샤머니즘을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도중 엑스터시에 빠지는 이상한 경험을 하곤 해서 자신이 巫俗학자로서의 신기한 능력이 있음을 교수들과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게 됐다.

지난해 6월28일에는 샌디에이고의대규모쇼핑·센터 오프닝·세리모니에 초청받아 한국 대감놀이의 제자들입고 부채, 방울등을들고 한국굿을 벌였다. 그가 야외가설무대에서 엑스터시로 가득찬 跳舞를추자 미국인관객 2천여명이 「바람같이」 모여들고, 가설무대위로 다투어 뛰어올라 함께 춤을 추었다. 이굿이 소문이 나서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국학페스티벌에서 「재수굿」을 벌였고, 지난 2월에는 오클랜드 박물관의 초청으로 굿을 벌였다.

『저의 굿을 보기전에는 거만하던 미국인들도 굿을 보고 나서는 겸손해지곤했어요. 그리고 관객의 대부분이 엑스터시에들어, 그처럼 신이나는 굿판이 없었다고 평하곤했어요. 그러나 세번째의 굿을 끝내고, 많은 미국인들이 굿을 요구해오니까, 이제는 설불리 나서지 못하겠다는 생각과 좀더 무거워져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6월7일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혼자 한국으로 찾아왔지요. 우리巫俗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한국巫俗을 깊숙이 체험해야한다는 마음의 「부름」 때문에 왔어요』

◇한국의 巫俗을 연구하는 學者로 美國사회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蔡熙娥씨.

그는 한국에와서 金錦花씨를 만나고 지난23일 黃海道萬神굿을 벌였다. 이굿판에서 그는 생전해보지도않은 칼춤을 능숙하게추어 자기자신도 놀랐고 새파랗게 날선 작두위에서 接神한춤을 추었다.

그는 칼위에서 춤을 추면서 「萬神에 지배당하는 듯, 시간과 공간이 아득히 멀어져버린듯, 이상한 황홀경에 빠져신이 났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치몸무게가 없어져 無限大를노니는듯한 느낌이 들어, 참석자들이 「칼위에서 내려오라」고해도 내려오기가 싫어서 그대로 춤을 계속했다. 굿이 끝나자 그는기분이 그렇게 좋을수가없었는데, 참석자들은 「내평생 이렇게 긴장해 본일이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제가 正樂, 雅樂등의「점잖은 우리음악」을 떠나서 巫俗을 하게됐다면 모두들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러나 巫俗은 단순한 意味를 넘어서는 깊은 뜻이 있어요. 요즈음은 지성이 너무 발달하고, 기계문명이 지배해서 우리가 가진 본연의 모습, 우리의 本能, 感性이 退化돼버렸지요. 그래서 사는일이 한마디로 재미가 없고, 흥이나질 않아요. 巫俗은 그렇게 退化된 인간 本然의 感性과 本能을 다시 되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巫俗에 들게된 것을 기쁨으로 느끼며, 우리나라 巫俗이야말로 우리가 상실해버린 人間本然의 얼굴을 찾는 通路가 된다고 믿어요』

그는 미국에서살며 기독교, 가톨릭, 禪佛教를 공부하고, 安着地로 한국巫教로 돌아왔다. 그는 「우리나라 精神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巫俗」이라고 생각한다. 그 우리의 깊은 뿌리가 기독교등 외래종교가 들어오면서, 또 巫俗자체가 靈的세계를 잃고 한낱 「점장이」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迷信」으로 밀려난 점이있다. 『사실은 檀君도 샤먼이었지요. 그리고 우리의 옛王朝는 거의 巫俗과 관련을 맺고 있었어요. 한국에 와보니, 巫俗이 오해되고 땅에 파묻힌 현상도 있지만 巫俗을 보존하고 키우고 불려가려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서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는 8월중순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미국인 윌리엄·로빈슨씨 (수출회사상무)와 결혼했고, 12세·13세되는 두딸을 두고 있다.

【萬桂淑기자】

나의 이력서
玄信圭 ⑪

洪陵試驗林 수난
KIST 建立說로 學界에서 큰反撥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강조되고 후생적 가치에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시애틀 임업대회 「선언」이 아직 귓가에 쟁쟁한데 정부의 일각에선 洪陵임업시험장구내에 KIST(과학기술연구소) 건설을 추진했다.

KIST는 뒤져있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개발을위해 웅대한 설계가 담겨있었고 시급히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들어서야할 곳이 임업시험장이 아니면 안되느냐에 이론이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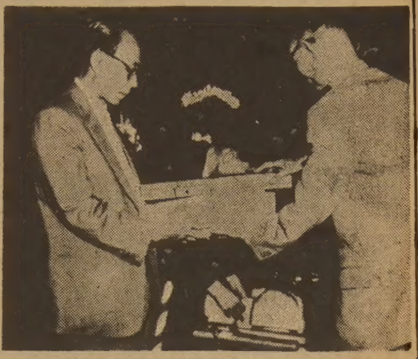
洪陵 임업시험림은 국내외의희귀한 樹種이 많은 점에서 시험림으로서의 가치가 부정될수 없다. 뿐만아니라 서울근교에 있어서 공기를 정화하고 공해를줄이는 후생적가치와 휴양림을 제공하는 관광림으로서의 기능도 높이 생각될만하다.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주변의 산림이 그렇지않아도 착식되고 있는 마당에 다목적기능을 맡고있는 그 美林을 베어내야 한다니 반대가 없을수 없었을것이다.

특히 임업시험림을 지키기위해 그동안 쏟아온 숱은 노력은 言語로는 부족할듯 하다. 日帝때에도 시험림 주변에까지 솔잎혹파리가 번졌었다. 솔잎혹파리는 유충이 땅속에서 성충이되어 소나무잎에알을 낳는다. 당시 임업시험장의 高木박사등 직원들이 2치 두께로 흙을 덮어가며 솔잎혹파리의 침입을 막아 오늘의 시험림으로 지켜 왔던 것이다. 바로 그런 정성이 배어있는 나무를 잘라내야 한다니 천부당 만부당했다. 따라서 임학회, 생물학회등관계 학술단체들이 임업시험장내 KIST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특히 朴萬圭박사가 열성을가지고 반대에 앞장을 섰다. 성명서를 만들어 정부와 각계에 배포,진정을 했다.

소나무밭 1정보에서 1년동안에 배출하는 산소의 양은 18톤이라한다. 18톤의 산소는 65명이 1년동안 호흡할수있는 양이다. 서울근교의 산림이 좋은편은 아니니 1정보의 산림이 배출하는 산소로 50명이 호흡한다치면 현재의 인구와 비교하여 16만정보의 松林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워싱턴등 선진국 수도의 경우 1인당 14㎡의 산림을 차지하는 꼴인데 우리는 0.02㎡밖에 안된다. 이같은 수치는 공해와도관계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筆者는 59년 7월 [illegible] (4회)을 수상했다 (수여자는 당시 회장이던 尹日善박사). 筆者는 아직 자격이없음을알고 自愧를느꼈으나 선배들의 후진을 아끼는 아량으로 받아들였다.

建設강행…多目的 美林해쳐 허탈에 빠지기도

인구가 늘어날수록 숲이 있는 녹지대도 늘어나야 된다는 뜻일것이다. 숲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기왕에 가꾸어놓은 숲을 깎는 일은 더더욱 있을수 없었다. 시애틀에서의 自覺이후 세계각국이 산림경영방식을 바꾸어가고 있고 특히 도시부근의 산은 국유림이라하더라도 시민의 반발로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손을 대지못하는 추세에 있었다.

반대가 하도 강렬하자 정부도 난처했던듯 계획추진에 주춤하는듯했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환경때문에 그자리가 더욱 탐이 났었을것이다. KIST건설을 추진하고있던 관계당국은 정부의 고위층을 움직여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고말았다.

반대에 앞장섰던 각 학회는 산림의 중요성, 소중성이 무너짐을보고 허탈에 잠겨 버렸었다.

나는 요즈음도 외국의 손님을 서울로 안내할때마다 곤욕을 겪는다. 중앙청을 마주보고 달리다 말고 외국인은 「저게뭐냐」고 묻는다. 「이순신장군 동상이라」하면 그게 아니고 중앙청 뒤쪽을가리키며 「저 허연산이 뭐냐」고 되묻는다. 그같은 외국인들의 질문엔 뭐라 더 설명할 재료가 없음을 느낀다.

내 자신이 서울을 둘러봐도 숲이라고는 南山과 洪陵의 시험림밖에는 따로 더 손가락으로 지적할만한 푸르름이 없다. 안타까운 마음 가눌길 없다.

애매한 藝術과 외설의 한계
법규엔「노출로 性도덕관념을 害하는것」으로 명시
映畵검열자 觀點따라 기준유동적

映畵法시행규칙6항에 명시된 노출·외설의 한계는「성기의 노출 또는 유방이나 육체를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성의상·율동·음향등이 선정적으로 묘사됨으로써 성도덕의 관념을 해하는 것」으로 돼있다. 한마디로 혐오감을 주는 노출이나 情事신은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만 관점이나 해석에따라 이현령비현령이 될수도 있는 규제조항이다.

한편의 영화에서 여배우의 노출이나 남녀간의 성행위묘사가 예술로 살아남느냐, 외설로 삭제되느냐는 순전히 검열자의 「판단의 눈」에 달려있다. 다수결로 可否를 결정하는 검열에서 예술과 외설의 한계가 지어진다. 초점이 되는 것은 노출·성행위가 그 영화의 메시지전달에 어떤 뜻을 지녔는가 하는 점이다.

◇영화에서 예술과 외설의 한계는 애매하다. 裸身이나 情事의 아름다움과 추함, 작품의 필연성 여부는 자로 잴수없기때문이다. 사진은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 촬영장면.

◆◆◆◆◆◆

「한국영화에 에로티시즘은 없다」—영화인들의 自嘲섞인 한탄이다. 영화작가와 검열관계자의 영상문화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해서 에로티시즘 영상이 외설로 평가돼 메시지를 지닌 에로티시즘 영상이 빛을 보지 못했다는 불만이다. 한국영화의 예술과 외설의 한계는 어디인가.

◆◆◆◆◆◆

그러나 70년대의 한국영화에서는 연출자가 단순한 눈요기거리가 아닌 작품구성상 필연적으로담은 情事·노출장면이 외설로낙인찍혀 무분별하게 삭제돼왔다고 영화인들은 은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위질로 앞뒤가 연결되지않는 토막필름이돼 영상미학은 커녕 줄거리조차 어지럽게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수의 非전문인으로 구성된 검열위원들의 경직된 검열안목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영화인들의 입모음이다.

75년 「겨울女子」를연출한 金鎬善감독은 60년대의 「山불」 「갯마을」같은 농도짙은 정사신을담은 영화를 상기시키면서 『대중은 지나치게 의식하면서도 영화는 의식하지않는 검열때문에 작가의욕이 외설로 전락한다』고 검열모순을 지적한다.

제작者 "成人영화에선 裸身허용당연" 公倫 "자극 목적인 情事장면은 외설" 기존윤리內서 예술성 지녀야

그는 자신을 잃고 현실에 쫓기는 한효과패이 작은 실수로 만난 고급콜걸과의 섹스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주제를담은 최근작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를 예로 든다. 이 영화에서 성적충동을 주는 裸身이나 성행위묘사가 없다면 한인간의 회복을 그려 낼수 없다는 것. 따라서 육체가 가지고있는 의미가 중요시 되는 성인영화에서는 국부를 제외한裸身의 노출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검열자의 눈에 추하게보인다면 삭제 보다는 차라리 不合格판정을내려 작가의 의식을 바로잡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보인다.

영화속의 외설·노출에 대해 公倫검열위원 金奎東씨(詩人)는 『문제는 작품으로서 얼마나 승화됐는가에 있다. 작품만 제대로 됐다면 벗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다』며 예술성높은 노출에 관대함을 보였다. 또 公倫의 한 관계자는 『영화속의 노출장면보다는 표현이 문제다. 말초신경의 자극이 목적인 노출·情事신은 외설로 해석할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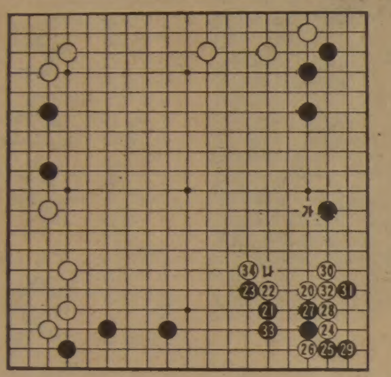
영화예술의 최종심판자는 관객이다. 20대의 한 관객은 『영화에서 포르노와 에로티시즘은 엄연히 구분된다. 간혹 무의미하고 혐오감을주는 정사장면도 없지않으나, 人間의 본성을 그리는 것이 영화라면 아름다운 원초의 행위묘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한다.

외설의 한계는 애매하다. 裸身이나 情事장면이 기존윤리를 파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예술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나로 정의하나 연출자 검열자 관객의 눈은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停年연장으로 社會활동 보장
최저生計위한 經濟的 지원도
고독감씻고 適應하도록 보살펴야

제⑫⑪ 名人戰 挑戰5番棋

第2局 第4譜20~34 (각5시간 (갑5집반))



白(名人)曺薰鉉〈1敗〉
黑(挑戰者)徐奉洙〈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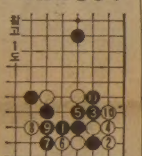
제1국때 名人이 시도한 중공식포석은 ▲표가 한발높은 「가」자리였던 일은 이미 지적한바있다. 물론 좌측 일대의 양상은 제1국과 판이하지만 좌우간 白20에 침입겸 걸침에서 黑21 이하 白26까지 제1국과 똑같이 진행된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黑27을 도전자는 여간해서 결정짓지 못했다. 제1국때 名人은 黑27을 참고1도와같이 黑1이하 11로 두어 귀쪽실리를 제공한대신 외세를 쌓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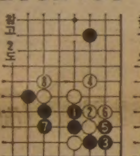
그런데 도전자는 18분을 숙고한끝에 실전처럼 黑27로 치받았다. 이것이 과연 ▲표의 위치의 차이와 어떤연관이 있는지는 차차 알게되겠지만 우선 黑27에대해 白28이면, 언뜻생각나는것이 참고2도 黑1이하 白8까지의 정형이다.

觀戰子도 이형은 의혀둔바가 있기때문에 필시 2도처럼 일단락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전의 결과는 이를테면 大同小異로도 중 黑31에들여다보고 나서黑33에 눌어 두었다.

右下귀 定石의 변화



참고1도



참고2도

아마실전에서는 2도에비하여 白의집모양을 위협하는 효과를 노린것인가 싶다.

하지만 名人은 5분을생각하더니白34로 강력히 젖혀버렸다. 黑이 일단 변화를 피한이상 白도34로「나」에뻗기가 쉬웠을까. 어쨌든 한파란 일어날것같다.

자, 黑은 어떻게 응할것인가. 당장 黑「나」쪽을 끊어볼고싶지만 뒤의변화를 확실히 내다보지 않으면 안된다. 【一凡】

카나다行각종우편 어제부터全面중단
加노조罷業

체신부는 캐나다의 우편노조 파업으로 1일부터 캐나다로 가는 항공및 선편 우편물의 접수를 전면중지 한다고 발표했다.

선풍기켠채 잠자다 再修生 숨져

1일상오 5시10분께 서울江東區吉洞359의45 朴泰墨씨(48)집 전넌방에서 朴씨의 장남 文桂군(20·재수생)이 선풍기를 켜놓고 자다가 숨져있는것을 동생 文淑양(18·松谷여고3년)이 발견했다.

文桂군은 전날밤 날씨가 무더워 새벽1시까지 공부하다 선풍기를 머리맡에 켜두고 자다가 변을 당했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안구 건조증
눈물 分泌 적기때문…심하면 失明도

涙腺에서 분비되는 눈물은 검은자위(角膜)와 흰자위(結膜)표면에 아주 얇은층(10㎛)을 이루면서 천천히 눈구석에있는 涙點을 통하여 코속으로 흘러 나간다.

이처럼 눈물은우리의눈표면을항상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활유역할을해주는동시에 각막 上皮층의불평을 평탄하게 해주어 눈으로들어가는 光線의 굴절을 고르게 해준다.

또 눈물은 눈표면을 깨끗이 씻어내는 역할도하며 모든 病原體에 대해 강한 저항력을 갖고있다.

이러한 눈물이 어떤 원인으로해서 분비량이 줄어들게되면 자연 눈은 건조해지게 마련인데 이를 안구건조증이라한다. 안구건조증이 되면 환자는 눈속에 모래가들어간 것처럼 異物感을 호소하게 된다. 이와함께 가려움, 쓰라림, 눈부심, 눈물량감소, 충혈, 통증, 누런 점액성액체분비와 눈깜박거림등의 증상을 나타낼수있다.

이같은 안구건조증은 외관상으론 약간의 충혈이있을뿐 흔히 별다른 변화를 찾지 못하는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눈물생산이라든가 분비가 전연되지 않는 심한 환자에서는 각막과 결막이 완전히 건조하여 角化되고 마치 피부처럼 변화되면서 失明이되고 만다.

한마디로 안구건조증이라 하나 그 원인은 무척 다양하다. 선천성 無涙腺 류머티즘 관절염과 함께오는 쉐그렌 증후군, 코마, 유행성 耳下腺炎, 만성 결막염, 涙腺의 여러가지 질환, 外傷과 종양으로 오는것이 있는가하면 누액분비의 감소를 일으키는 藥劑(아트로핀, 이노제등) 비타민A부족, 化學傷의 후유증을 비롯 모든 신체기능이 떨어진 老人들에게서도 나타날수 있다. 이밖에 中東지방처럼 건조하고 무더운 기후가 눈물을 너무 빨리 증발시켜 이런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치료법은 人工涙液을 자주 점안하는 길밖에 없다. 안구건조증이라든가 각막궤양이 생기면 이에대한 치료법을 병행하게 된다. 이를 치료로 조절이 안돼 실명한 경우엔 최후로 人工角膜移植수술을 할수있다.

金在浩(醫博·가톨릭醫大江南성모병원안과장)

趙善作作
禹慶熙畵
<137>

그림자 놀이 ㊻

나는 미스 노에게 김윤호라는 이름의 남자 친구도 한명 있다는 사실을 재빨리 간파했다. 그러면서도 기혼 남자와 사랑에 빠져 버린 방종한 그녀의 사생활은 못마땅하게 여겨졌는지 나에게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을 뿐, 나는 곧 포로로 잡은 적을 심문하는 자의 잔인한 쾌감으로 돌아갔다.

『실은 나 그 키큰 남자가 누군가도 알고 있거든』

노영지는 너무 놀라서 의문의 말도 입에 담지 못하는 눈치였다. 혜정이와 은애도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내입만 바라보았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 남자 유명한 사람이잖아? 여기 저기서 사진도 많이 보았고, 또 언젠가는 텔리비전에도 나왔던데』

나는 그가 하찮은 가요(歌謠)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나와 채점판을 들어올리던 우스꽝스런 장면까지 입에 올렸다. 어떤 경위로 그가 그런 프로그램에까지 얼굴을 내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가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사실을 내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워 해왔을 지경이었다. 최고의 정신적인 수공업 (어떤 작가가 소설 쓰는 일을 그렇게 표현했었다)에 종사하는 사람이 쇼 프로그램의 어릿광대(심사위원이라지만 그 비슷한 역할이다)라니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짓인가.

내 말을 듣고 혜정이와 은애는

『어머, 너 출세했구나』

『누구니, 탤런트니? 알아모셔야 겠는데』

하고 한마디씩 떠들었다. 그러나 영지는 애소(哀訴)하는듯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 보며 가만히 말했다.

『언니, 저어…이 다음에 언니한테 자세히 고백할게요. 얘들한테는 제발…』

은애와 혜정이가 단박에 반박하고 나왔다.

『너 언제부터 우리형님하고 그렇고 그런사이라고… 형님, 그게 누구예요? 작곡가예요? 영화감독쯤 되나요?』

『영지 너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는거 알아줘야돼. 얘 말예요, 남얘기는 미주알 고주알 다 캐묻고 하면서 제 얘기는 한마디도 안하는 애예요. 그런다고 언니가 우리한테 말 안해줄 줄 아니? 아, 혹시 한민일씨 아녜요? 작가』

정말 마침내 혜정이가 그의 정확한 이름을 들고 나왔는데, 오히려 놀란 것은 노영지보다도 나였다.

『그렇죠?』 라고, 혜정이가 내게 확인하려는데 미스노가 펄쩍 뛰며말했다.

『아니다. 언니 아니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는 재빨리 노영지에게동조했다.

『아닌데. 그런 사람 난모르는데…딴 사람이야』

나는 미스 노가 이 다음에 내게 자세히 고백하겠다고한 말에 기대를 걸었던것이다. 잠시 세 어린 여자들 사이에 티격태격 신경전이 오고 갔다. 나는 그들의 말싸움을 잠자코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러다가 괜히 친구들의 의(誼) 끊어 놓는게 아닌가 모르겠다』

『아네요.우리 늘이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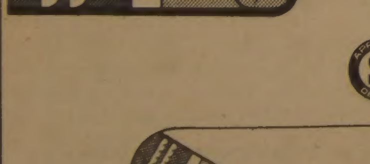
라고 혜정이가 말했고, 영지도 「괜히 그러는거죠 머」 하고 대꾸했다.

『아뭏든 나 미스노의 그 비극적인 헤어짐이 여간인상적인것이 아니었어. 부럽기도하고… 언젠가 고백하겠다는 말 믿어도돼? 궁금해서 견딜수가있어야지. 친구들을 없는데서 우리단둘이만… 어때 내일 병원으로 좀 찾아와줘도좋고…』

『언니도 너무 하신다. 밤새 잔지럽을 태워서라도 난 언니보다 먼저 고백을 들었어요』

혜정이가 짐짓 샐쭉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CLEARANCE SALE〉
2 WEEKS ONLY
(1981년7월3일~7월18일까지)

SINGER

●Repair $24.99
●Used Machine(중고품) $49.95부터 있읍니다.

The Touch-Tronic* 2001 memory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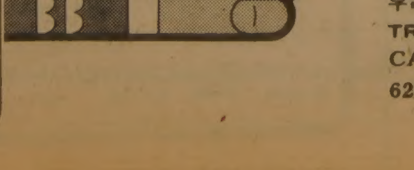
SAVE $300

The Fashion Mate* ZIG-ZAG machine

SAVE $40

The Stylist* FREE ARM Stretch Stitch machine

SAVE $100



미싱계의 왕 싱거!

바느질 배우는 낮과 저녁반 코스를 제공
우리는 모든 종류의 미싱을 취급합니다.
TRADE-IN도 합니다.
CALL : MR. ARMAND
620 BLOOR ST. W. TOR.
(킹스카메라 건너편)
☎ : 537-4881 or 537-3841

崇義實·中東·啓聖高 水中戰 뚫고 8強 도약

장신曺敏國 2골로逆轉 中東
朴炳煜 논스톱 슛 殊勳 崇義

대통령배 高校축구

崇義實高(光州)、中東高、啓聖高가 빗속의 드라머를 연출하며 8강에 도약했다。中東高는 1일 효창운동장서 벌어진 제14회 대통령금배 쟁탈 전국 고교 축구대회 7일째 3회전 경기서 투지의 江陵商高와 격렬한 수중전을 벌인끝에 3—1로 역전승、준준결승에 진출했으며、光州의 崇義實高는 中央高를 1—0으로 물리쳐 8강 대열에 올랐다。

진흙탕속의 攻防 中東高와 江陵商의 열전。양팀선수들이 진흙탕에한데엉켜뒹굴고있다。

고교축구의 명문 儆新高와 啓聖高간의 대전서는 啓聖高가 승부차기서 4—3으로 이겼다。금년도춘계 연맹전 준우승팀인中東은 전반6분 江陵商의 金信榮에게 골을 허용하여 1—0으로 뒤졌으나、장신(1m80) HB 曺敏國이 동점골과 역전골을터뜨려 전세를 뒤집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행된 학생축구대회 한국대표로 출전했다가 30일 귀국、팀에 합류한 曺는 전반28분께 江陵商 페널티·에어리어 정면에서 강슛、볼은 江陵商 수비 등에 맞고 골인되어 동점골을 터뜨렸으며 후반23분에는 동료인 金榮秀가 왼쪽에서 페널티·에어리어 중앙으로 볼을 밀어주자 왼발로 강슛、역전 결승골을 성공시켰다。中東은 경기종료3분전 金榮秀가 3번째 골을 넣어 승리를 굳혔다。

崇義實은 후반15분 朴炳煜의 수훈으로 中央高를 어렵게 제치고 3회전 관문을 뚫었다。鄭東福이 中央高 페널티·에어리어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볼을 올려주자 朴炳煜이 논·스톱으로 슛、볼은 中央GK 林穀範의 손에 맞고 골인되어 결승골을만들었다。

◇제7일전적
▲3회전

숭의실고 1 (0—0, 1—0) 0 중앙고
중동고 3 (1—1, 2—0) 1 강릉상고
계성고 1 (0—0, 1—1) 1 경신고
<승부차기 4—3>

「金盃의스타」 中東 曺敏國
守備 건실한 長距離砲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江陵商高와의 대전에서 동점 골과 역전 골을 넣은 中東高의 장신 HB 曺敏國(18)은 얼굴에 흥건히 묻은 빗물을 닦아내며 활짝웃었다。曺는 올해 춘계연맹전때 빈틈없고 안정감 있는 플레이로 수비상을 받은 우수선수인데 최근 발이 빠르고 점프력과 헤딩이 뛰어나 FB에서H B로 자리바꿈、中東공격진의 새로운 득점원으로 떠올랐다。인도네시아 학생축구 대회 싱가포르와의 대전때에는 30m거리의 장거리 슛으로 득점하기도 했다。九老국교 4학년때 축구를 배우기 시작、東大附中을 거쳐 中東高에서 수비선수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學生아마복싱 4百명 出戰
仁川서 開幕 송창호·이방헌RSC勝

제31회 전국학생아마복싱선수권대회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선수 4백1명이 참가한가운데 1일 仁川실내체육관에서 개막、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첫날 고등부 플라이급 1회전경기에서 송창호(남산공전)는 한상회(광동실고)를 처음부터 두들긴끝에 2회 52초만에 RSC로 승리、최웅산(인천기공)을 판정으로 누른 장판수(덕인고)등과함께 2회전에 올랐다。또한 고등부 밴텀급경기서는 이방헌(한영고)이 우세한 체력과 펀치력으로 박종걸(전북체고)을 몰아붙인끝에 3회 14초만에 RSC로 이겨 기염을 토했다。

같은급의 윤영학(광성고)도 조준실(목포홍일고)에 일방적인 판정승을 거두고 역시 2회전에 올랐다。이번 대회는 중등부 11체급、고등부 13체급、대학부 11체급에 걸쳐 오는6일까지 각체급우승자를 가려내게된다。

◇첫날전적
▲고등부플라이급
이봉상(춘천기계공) 기권 강석현(신성고)
송창호(남산공전) RSC 한상회(광동실고)
장판수(덕인고) 판정 최웅산(인천기공)
▲동 밴텀급
이방헌(한영고) RSC 박종걸(전북체고)
윤영학(광성고) 판정 조준실(목포홍일)

아세안 高校生 스포츠 交流
亞洲전역 擴大전망
자카르타에서 發起준비회의

아세안5개국(말레이지아、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간에 실시중인 고교생 스포츠교류가 아시아전역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지난6월 23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폐막된 가칭 아시아학생경기연맹(ASGF) 결성준비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金光鎬대한체육회 국내국장은 이번 회의에선 규정초안을 심의하고 금년내 泰國 방콕에서 열리는 확대회의에서 축조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SGF는 아시아지역국가 고교생들의 경기기능향상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지난해 印度가 창설을 제의、이번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홍콩、말레이지아、태국、인도네시아、印度、브루네이、싱가포르등 8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은 ASGF의 발기위원국이 될것이며 한국고생선수들의 동남아시아진출 전망이 밝아졌다고 金국장은 말했다。

産銀 말聯에패배
印尼국제농구

인도네시아의 메단에서 개최중인 제5회 애니버서리컵쟁탈 국제농구대회에 참가하고있는 産銀남자팀은 5전3승2패의 전적을 올렸다고 30일 농구협회에 알려왔다。

産銀은 지난24일 첫경기에서 말레이지아에 103—106으로 패했으며 25일 印度를 106—84로 눌렀다。

말레이지아 106—103 産銀
産銀 106—84 印度
産銀 74—70 泰國
필리핀 107—71 産銀
産銀 91—75 싱가포르

윔블던 테니스大會
男單 4強압축
보리·코너스、매켄로·프롤리

【윔블던(英國)30日AP=聯】총 상금65만달러의 제95회윔블던 테니스대회 남자단식패권다툼은 비외른·보리·지미·코너스·존·매켄로·로드·프롤리(濠洲)의 4강전으로 압축됐다。

30일 준준결승에서 올해로 윔블던 6연패에 도전하는 스웨덴의 보리는 濠洲의 피터·맥나마라를 3—0(7—6、6—2、6—3)으로 눌렀으며 美國의 노장스타 코너스는 印度의 비제이·암리트라즈에게 고전끝에 3—2(2—6、5—7、6—4、6—3、6—2)로 이겼으며 지난해 준우승자인 매켄로는 南阿共의 요한·키리에크를 3—0(6—1、7—5、6—1)으로 각각 물리치고 준결에 진출했다。

남자단식 준결승전은 보리—코너스、매켄로—프롤리전으로 결정되었으며 보리와 매켄로는 작년대회에 이어 올해도 결승에서 대결할 공산이 짙어졌다。

加 女子핸드볼 한국 決勝進出유력

오는 10월 캐나다에서 개최될 제3회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韓國팀의 결승리그 진출이 유력해졌다。

국제핸드볼연맹(IHF)은 1일 韓國은 美國·네덜란드·유고와 함께 예선리그B조에 포함됐다고 협회에 알려왔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여보、제게 좋은소식과 나쁜소식이있어요"
"나쁜소식은 제가방금 식료품사느라고 60달러를쓴거구요"
"그럼 좋은뉴스란 뭐지?"
"물건이 적어서 당신이 집안으로 옮겨주지 않아도 된다는거죠"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WBA주니어밴텀級 타이틀決定戰
"開催權 공개入札로"
바야스側이 公言

【부에노스아이레스AP=聯】프로복싱 WBA신설 주니어밴텀급 타이틀을놓고 챔피언결정전을 벌일 韓國의 金錫哲과 아르헨티나의 구스타보·바야스와의 대전개최권이 공개입찰에 붙여질것이라고 바야스의 매니저 후앙·카를로스·렉루레가 30일 밝혔다。

지난24、25일 이틀동안 美國휴스턴에서 벌어진 WBA집행위원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렉루레매니저는 이날 한국측에서 7만5천달러로 서울에서 개최하겠다고 제의해왔으나 이를거절、이사실을 WBA에 통고했다고밝혔다。

또 그는 공개입찰에 의한 가격등 개최권의결정은 오는 15일에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레너드·헌즈戰앞서 쿠에바스對戰 요구

【멕시코시티30日UPI=聯】오는 9월16일 프로복싱 현WBA웰터급 챔피언인 토머스·헌즈와 통합 챔피언전을 벌인다고 발표한 동급WBA챔피언 슈가레이·레너드는 이경기 이전에 멕시코의 피피노·쿠에바스와 먼저 타이틀방어전을 가져야 할것이라고 쿠에바스의 매니저가 30일 밝혔다。

그는 美國인 프로모터 돈·프레이저씨에게 이미 쿠에바스—레너드전의 주선확약을 받았다고 밝히고 양선수의경기는 레너드—헌즈전의 임시대전일로 발표된 9월16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쿠에바스는 지난해 헌즈에게 판정으로 패해 WBA챔피언타이틀을 넘겨주긴 했으나 KO왕으로 알려진 복서이다。

泰、印尼꺾고 우승
亞洲학생축구

【자카르타30日AP=聯】泰國은 29일 자카르타에서 폐막된 제10회 아시아학생축구선수권대회에서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를 4—0으로 대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泰國은 이대회 창설이후 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말레이시아와 브루네이는 2—2로 비겨 공동3위를 차지했다。

한국고교선발팀은 예선에서 1승2패를 기록、탈락했다。

曺惠貞씨 코치로
松源여고 배구팀

【光州=聯】날으는 작은새로 불리는 한국여자배구의스타플레이어 曺惠貞씨(28)가 1일 光州松源女高 배구팀코치로 부임했다。

여고 배구팀에 여자코치가 부임하기는 국내배구계에서 처음있는일인데 曺코치는 현재 국내여고배구계의 정상을 차지하고있는 松源에 큰활력을 더할것으로 보인다。

大型石造水桶발견
金陵郡 修道庵 앞마당서

【金泉=聯】경북金陵郡 甑山面修道里 수도암(주지 金香泰)앞마당에서 최근 신라시대 수도승들이 사용한것으로 보이는 대형 석조수통이 발견됐다。

약1개월전 암자의 앞마당 정지작업을하던중 발굴된 이 석조수통은 길이 2.85m 너비 1.2m 높이 77cm로 깊이 50cm의 홈이 패여져있으며 바닥에는 물을 빼낼수있는 지름 4cm가량의 구멍이 뚫려있다。

수통을 발굴한 金주지는 5일전 문화재전문위원 3명이 이수통을 감정한 결과 지금까지 국내사찰에서 발견된 수통가운데 가장큰 신라때것으로 추정했으며 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는 것。

보물 296호로 지정된 약광전、석불상등 3점의 문화재도 갖고있는 수도암의 정확한 전립연대는 알려지지않고있으나 신라때 전국에있던 승려들이 모여 수도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한국일보 詩壇

물소리
金龍海

여름 물소리가
다시 살아 오누나
작년 이맘 때 나를 찾던 물소리
그림자를 하나 가득 깔아놓고
山으로 들로 나를 몰아가던 푸른 노래들
世上은 참 멀리 있었고
나는 신이나게 물소리를 내었지
살아가는 아픔 다 털어내고
올해도 떠나리라
물소리가 되어서
돌돌 흐르며 山으로 바다로
때로 아무도 가보지 않던 이승으로 가서
나의 물소리는
크낙한 울음으로 되리라。

張吉山 (1603)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63)

우대용이 곁에서말하였다。

『참、우리 형수씨께서는 예전에 이근처 광대산 재인말에서 사셨답니다』

『아、그래요… 그렇다면 구월산 밥고개며 사선골이들이 모두 거기 태생인데、잘들 알겠구먼』

이경순은 전후사정을 아내에게서 들어 알고 있으되 뭐라 달리 할말이 없어 무뚝뚝하니 앉았고、여환은 길산의 일을 아는지라 대용이가속없이 그런 애기를 꺼내는구나 싶어서 얼른 말을 돌렸다。

『송도 박좌장은 어찌하고 두 분만 오셨오?』

『오다가 들러서 하루 묵었지요。각 입방에 밀린일이 있어서 당일에 오시겠다구 하더구먼。그리구 은률서 끌려갔던 사람들 삭녕인가 영평인가에 부락을 허가 하였다는데、대근이 성님이 차인들을 보내어 탐지하도록 하였으니 알아가지구 올게요』

우대용이가 그렇게 전하자 옥여는 허공을보며 탄식하였다。

『우리는… 관군의 구월산 토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쪽에서는 한참 뒤에야 풍문에 접하였고 송도 박대인에게 자세히 듣고는 통분하여 잠을 못이루었지요』

이경순이 말하자 대용은 곧 고개를 떨구었다。

『감동이와 만석이가 죽은 소식도 들었소。나허구는 조읍포에서 헤어진게 마지막이 되었지요。나는 하도 분하여 해주 용댕잇개로 배를 부려 감영까지 떼칠까 했었오。토포장인가 했다는 최 모라는 무장은 우리 형제들이 꼭 찾아서 없애 버려야 하지요』

『최형기…한양서 종사관 해먹은 자요』

이경순이 말하였다。그는 살주계와 검계가 깨어지던 전말을 소상히 알고있던 터였다。

『우리 계에서 그 자를 없애려고、종루 배오개근처에 목을참고숨어서방포까지하였으나 운 좋게 살아났지。빈틈이 없는 자요。살주계를모조리 적발하여 검계마저 위험에빠뜨렸었지。그자가 서강 모서방의계책에 말려들지 않았던들 검계는 완전히 포착 되었을게요』

옥여가 물었다。

『최모가 신 감사를 따라와 만호 자리에 있다는데、이번 토포 뒤에도 감영에 머물러 있답니까?』

『아니오。해주 송방서 탐문한 바로는 스스로 자리를 물리고 한양으로 올라갔다구 그럽디다』

대용의 말에 옥여는 혀를 찼다。

『야차 같은 중생!…무고한 양민의 원혼이 그냥두지 않을 터…』

하고나서 옥여가 방문을열고 사람을 찾더니 손님들에게 점심을 드리라 일렀다。

『자、공양 들구나서 큰스님께 뵙고、오진암에 올라갑시다』

그들은 먼저 달마암에 올라 풍열스님께 인사를올리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다가 오진암으로 올라갔다。오진암은 후미진 곳이고 경내도 깨끗하고 정밀하여 이러한 모임에는 적합한 곳이었다。암자에 오를제 이경순이 뒤처진 여환에게 나란히 다가서더니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장 두령도 오기로 하였오?』

『예、올겁니다。처음 상면이지요?』

『그렇소』

이경순은 더이상 말이없었고、여환이도 내색하지 않았다。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GM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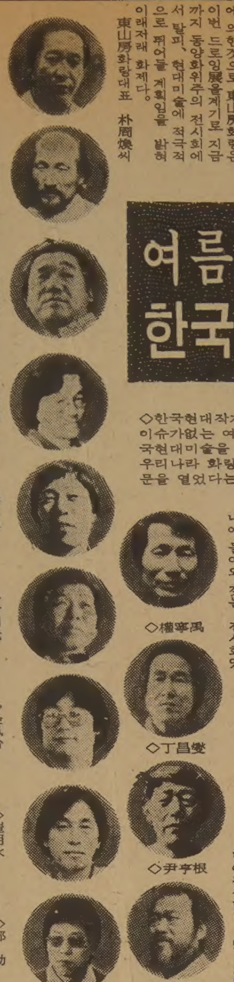
기 계 공
젊은 분으로써 기계 취급에 취미있고 기계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원합니다.
경험 있으신분 환영 합니다.
12학년을 마치신분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신분 우대합니다.
전화문의 : 499-5310
MR. STEIN

경희대동문회
정기총회 공고
1981년도 재 카나다 경희대학교동문회 정기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저 하오니, 동문되시는 분은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7월15일(수) 오후8시
장 소 : Choi's Restaurant
759-8512
2432 Eglinton Ave. East
(Kennedy Rd.와 교차되는 동북쪽 plaza안에 있음)
연락처 : 윤 덕 조(742-3113)
박 찬 도(924-5155)
조 기 연(691-0892)
이 정 호(278-9700)
1981년 7월1일
재카나다 경희대
동문회 회장 윤 덕 조

東山房화랑서 7일까지 개최

여름畵壇의 관심모으는 한국현대작가 드로잉展

◇한국현대작가 드로잉展이東山房화랑 (대표朴周煥) 에서 열리고있어 이슈가없는 여름畵壇에 큰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있다。이드로잉展은 한국현대미술을 이끌고있다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또 우리나라 화랑과 미국의 화랑이 전시회를 공동주최,본격적인 交換展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朴栖甫 ◇鄭相和 ◇河鍾賢 ◇金麒麟 ◇李禹煥 ◇尹明老 ◇金鳳台 ◇崔明永 ◇郭勳 ◇權寧禹 ◇丁昌燮 ◇尹亨根 ◇金昌烈

在佛·在美작가등 13명 초청
美아트코畵廊과 공동주최로
世界미술 흐름 파악…내달엔 美서 교환展

美術話題

지난1일개막,7일까지 개최되는 한국현대작가 드로잉展의 초대작가는 郭勳 權寧禹 金麒麟 金鳳台 金昌烈 朴栖甫 尹明老 尹亨根 李禹煥 鄭相和 丁昌燮 崔明永 河鍾賢화백등 13명。이가운데 權寧禹、金昌烈 尹亨根 鄭相和 金麒麟화백등은 현재 프랑스에서 활약하고있고 郭勳 金鳳台화백등은 미국에서、李禹煥씨는 일본에서 작가생활을 하고있다。

東山房화랑과 공동주최하는 외국의 파트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비중있는 아트코화랑 (Artcore·대표 리디아·다께시다) 으로 서울展이 끝나면 오는 8월1일부터 30일까지 로스앤젤레스의 同화랑에서 미국展을 갖는다。

이 공동주최연의계기는 在美작가인 金鳳台화백의 주선에 의한것으로 東山房화랑은 이번 드로잉展을계기로 지금까지 동양화위주의 전시회에서 탈피、현대미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임을 밝혀 이래저래 화제다。

東山房화랑대표 朴周煥씨는 또 이번 미국展이 성공하는 경우 아트코화랑과 1년에 한차례씩 서로 교환전시회를 가져볼생각이라고 말하고 交換展의 대상은 주로 양국의 현대작가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전시회에 드로잉을택한것은 드로잉이 실현미술의 하나라는점에서、또 드로잉은 그림이 테마를 완성하는데 반해서 이를 완성하지않고 흔적만을 남긴다는 점에서『지역이나 언어 또는 고유의 전통을 넘어서서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고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외국화랑과의 공동주최전시회는 지난4월 現代화랑이 미국의 이스턴·아트·인터내셔널과 서울에서 가진 「호앙·미로展」이 처음으로 국제巨匠들의 작품을 국내에 들여와 갖는 전시회였다。

한편 畵壇의관계자들은 한국현대작가 드로잉展에 큰관심을 표하면서 국내외畵壇에서 활약하고있는 작가들을거의 망라했다는데 대해 「적절한 선정」이라고 평했다。

관계자들은 또 한국현대가드로잉展이 프랑스나 일본畵壇에서 활약하고있는 작가들도 작품을출품함으로써 세계미술의 흐름이나 동향을파악하는데 큰도움이됐다고 말하고 국외작가와 국내작가들의 작품을 비교 평가하는 계기도 제공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畵壇의 관계자들은 이어국내화랑이 외국화랑과 결연、交換展을 갖는다는것은 미술시장의 국제화에 대비해서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제 우리나라 화랑들도 이같은 관점에서 외국화랑과 정기적인교류가 필요한 단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미국展에 필요한 비용은 아티코화랑에서 절반을 부담하는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展에는 東山房대표 朴周煥씨와 작가측에선 丁昌燮·尹明老화백이 오프닝에참석한다。【丁薰기자】

2만년前부터 農事지었었다
나일강상류서 大麥6백알 나와
메소포타미아보다 4천년 앞서

인류가 2만년전에 농사를 지었음을 알려주는 유물이 이집트 나일강상류 코바냐유적에서 계속 출토돼 관심을 모으고있다。지난해 소형 돌절구 농경용石器와 다섯알의 大麥이 발견된 이래 최근엔 6백알의 대맥이 발견됐다。이집트考古廳은 발굴된 유물로미루어『인류의 농업발상지는 이집트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유물이 출토된 곳은 나일강 西岸의 코몬보지구에 있는 코바냐 유적。애스원하이댐으로 알려진 이집트남부의 휴양지、애스원에서 북쪽으로 20㎞떨어진 사막지대이다。

지금은 사막으로 둘러싸여있지만 선사시대는 나일강이 범람해 아주 비옥했고 울창한 산림도 있었던것으로 보여진다。

이지역은 4년전부터 이집트 고고학자 모하메트 이사위박사등이 발굴작업을 계속하고 있다。이사위박사팀은 大麥알등 출토된 유물의 연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한결과 기원전 1만8천3백년~1만7천년전의 것으로 밝혀졌다는 중간보고서를 지난5월말 이집트考古廳에 제출했다。

이집트考古廳에 의하면 인류가 처음 농사를 짓기시작한 것은 기원전 1만4천년전으로、이라크의메소포타미아지방으로 알려져왔다。이번 출토품으로 나일강 상류지방이 이라크의메소포타미아지방보다 약4천년 전에 농사를 짓기시작했음이 밝혀졌다는 주장이다。

이사위박사는 大麥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그옛날 이지방에서 대맥을 재배했음은 물론 대맥재배를 위해 灌漑시설까지 했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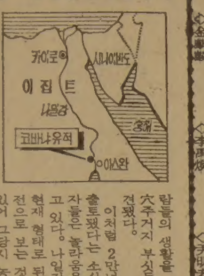
코바냐유적에서는 대맥외에도 일종의 대추열매·콩및 나일강에서 사는 물고기와 아프리카사슴의 뼈등이 나왔다。

유적발굴팀은 이지방에서는 농업과 아울러 나일강에서의어업과 삼림에서의 수렵도 당시 사람들의 중요한 생활수단이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도 선사시대 이집트사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학자도있다。大麥은 원래 야생이기 때문에 大麥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농업과 연결지을수 없다는 풀이다。

그러나 카본데이팅등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그같은 연대가 밝혀졌다면 대발견이라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있다。【外紙】



◇극예술 연구회의 제6회 (1934년) 공연무대—「[illegible]」 (李軒求작·洪海星연출)。오른쪽이 당년의 名여배우 故 金復鎭。

創立50돌 劇藝術研究會
8일 기념강연…演劇史的위치 再評價
劇術 계몽 보급·批評·워크숍등 도입
理論바탕으로 정통近代劇 기반닦아

연극

우리나라 연극운동의 길잡이 노릇을한 劇藝術研究會(약칭 「극연」)가 오는8일로써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한국연극협회、한국희곡작가협회、한국연극학회、국제극예술협회 (ITI)한국본부、문예진흥원은 이날 하오4시 문예진흥원강당에서 「극연」의 한국연극사적 위치를 재평가하는 기념강연회와 徐恒錫(81)、李軒求(76)、鄭寅燮(76)、曺喜淳(76)씨등 「극연」에서 활약하던 인사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뜻깊은자리를 마련한다。기념강연회에는 徐恒錫씨가 「劇硏을 회고함」 柳敏榮교수 (단국대) 「劇硏의 연극사적위치」 李泰柱교수 (단국대) 「劇硏과 번역극」 韓相喆교수 (성심여대) 「劇硏과 창작희곡」등을 발표한다。

근대극을 올바른 이론위에 확립하고 西歐의 연극과 같은 방향에서 전통화하는데 커다란 자취를 남긴 劇硏은 1931년7월8일 尹白南(대표) 洪海星 金晉燮 柳致眞 吳河潤 李軒求 張起悌 鄭寅燮 曺喜淳 徐恒錫 崔挺宇 咸大勳씨등 12명의 창단 동인들로 발족했다。

여기에 뜻을 같이한 70여명의 젊은이들이 합세한 「극연」은 연극강좌 강연회 신문과 잡지의 합평회등을 통해 劇術에 대한 연극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직속 공연단체로 「실험무대」를 두고 1932년 5월 고골리원작 「검찰관」을 咸大勳역 洪海星연출로 조선극장(서울 종로5가)에서 창립공연한 이래 1938년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할때까지 모두 26회의 공연실적을 남겼다。

『당시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가있었던신파극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논란의대상이 되었으며 민중계몽에 설득력과 선도력이론 新劇을사회에 올바르게 인식시키고자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창단 동인의한 사람인 李軒求씨는 말한다。

그무렵은 연극무대에 여자들이 서게되면 팔하나버렸다고 법석을떨었던 시절인데도 女子短期劇藝術강좌를 개설하여 朴今隱 金映玉씨등 7명의 여성연극인을 배출시켰다고말하는 徐恒錫씨는 9년동안 「극연」과함께겪은 고난중 일인들의 탄압과 좌익예술동맹및 흥행극 (신파극)의압박이 컸다고 회고한다。

일인들은「연구회」라는이름은 의식적인 민족운동을하려는 불온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으니 연극을 하려면 순전히먹고 살기 위한 흥행단체라는 뜻의「座」이름을 쓰라고 강요、탄압에 견디다못해 말년에는「극연좌」로 이름을 고치기까지 했다。

연극관계자들은 오늘날의 연극운동의 기본바탕이 「극연」에서 계승되어진 것으로 보고있다。현대에 들어와 전개된 실험무대운동、연극비평、또 젊은층에 劇術의 씨를 뿌리는 워크숍개최、연극의 순수예술성추구、번역극을 통해 극술을 섭취、창작희곡진흥의 토대로 삼는 움직임등이 모두 그예이다。

柳敏榮교수는 『극연은 근세 개화기 서양의 사실주의 연극을 이땅에 도입하여 오늘날 한국현대극의 기반을닦은 연극단체로 한국연극사에 있어 정통근대극운동의 시발점이었다』고 평가한다。

李泰柱·韓相喆교수도 『희곡에대한 전통이없었던 우리극계가 극연의 많은 번역극공연을통해 비로소 西歐의극술을 받아들여 희곡을 하나의 문학 장르로 수립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金正鈺 연극협회이사장은 『이번강연회를 통해 「극연」의 史的위치를 재 평가해 봄으로써 침체된 연극계가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子】

教科書박물관 생긴다
한국교육개발원 내년1월에
70년이전것 所藏者 연락을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박물관을 설립한다。개관 예정일은 내년1월。국내외 각종 교과서및 교육과정자료를 전시할 계획인데 소장자들의 연락을 바라고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과서박물관설립을 추진해온 것은 80년 4월부터。교과서는 한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역사적·문화적 유산으로 이를 잘보존해 후대에 남겨야 한다는데 설립의 뜻을 모았다。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를 개발해온 교육개발원 자체의 기능이 설립취지에 가미된 것은 물론이다。

수집대상을 국내는 개화기이후로、국외는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70년대이후의 교과서는 개발한자체의 힘으로 거의 완벽하게 모았으나 그이전 것은 소장자를 몰라 수집하지못했다고한다。

해방후 지금까지 발행된 교과서는 약2만종으로 추산되고있다。발행원 교과서의 목록은 그전대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마련돼 있으나 소장자는 알수없다。

소장자가 밝혀지더라도 선뜻 내놓으려는 사람이드물다。되도록이면 설립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증받으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팔려는 뜻만 보일뿐이다。

외국교과서는 우선 해외에 연수및 출장나가있는교육개발원의 연구원을 통해 수집하는 한편 한국에 나와있는 각국대사관및 외국인학교 해외한국인학교 외무부등의 협조를 모색키로 했다。

개관할때까지 국내외교과서 1만종을 모을 계획인데 현재 수집된것은 3천종。대부분 70년이후의교과서에 6·25동란 전후것이 약2배종이라고한다。

현재까지 수집한것중 가장 오래된것은 1906년에 발행된 중등교과 「東國史省」。日政시대의것으로는 1917년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 내놓은「語方細要 上권」이며 해방이후에 나온 교과서로는 이정기著等「일반과학 물상편」과 최현배저 「중등조선말본」등이다。

한국교육개발원측은 박물관설립에 대한 교육계의 이해를 바라고 있다。지금까지 수집한 경험에 의하면 교과서는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교사및 대학교수들이 소장하고 있다는것이다。

교육개발원 崔鍾運자료실장은 애써 보존해온 자료를 반드시 기증하지 않더라도 소장사실만이라도 알려주기를 희망하고있다。복사를 해서라도 전시하고 싶다는 뜻이다。

교과서를 소장하고 있거나 기증할 뜻을 가진 사람은 한국교육개발원 자료교육국 (㉗5121·5021 서울江南區牛眠洞山20의1)으로 연락하면된다。【旦】

文豪의 名言

李滉
<1501~1570>

朝鮮朝中期의學者。字는 景浩,號는退溪 陶翁 退陶。禮安출신。1528년進士,1533년成均館에들어가 이듬해 文科급제,1539년 弘文館修撰이됐으나 일생을통해 그가 專主한것은 學問이었음。朱子의학설을주로한理氣二元論을주장。文廟에配享。退溪全集自省錄등저서。

君子의 學問은 자기를 위할 따름

君子의 學問은 자기를 위할 따름이다。

자기를 위한다는것은 「위하는 바가없이」 한다는 것이다。

우거진 숲속의 난초가 온종일 향기를 피우면서도 스스로는 그향기로움을 모르는것과 같은것이니、君子의 자기를 위하는 뜻에 꼭 맞는 말로 마땅히 깊이 본받아야 할것이니라。

× × ×

朱子學을 集大成한 大儒學者로 李珥와함께 雙璧을이룬 李滉은 많은 저술을 남겼다。

退溪全集 59권을비롯 그가 편저한 책들중엔 朱子書節要 宋季元明理學通錄 啓蒙傳疑 四書釋義등이있다。

특히 退溪全集엔 詩集이많다。

그의 詩는 自然을 읊은것이 많이 눈에 띈다。

『한밤중 노는神仙、꿈에서 깨어나서 그윽한친구불러 蓬萊에올랐도다。

맑은 바람곳이있어 옷소매를 맞아오고 밝은달 정이많아 술잔에 보내주네』읊술년 가을 陶山에있을때지은詩다。田園의 조용한 아취、특히 梅花를 사랑、陶山書院주변엔 지금도 많은 梅花가 남아있다。

젊어선 陶淵明을 좋아해 李滉자신도 청아담담한 시를 잘지었었다。

退溪集에서 우리는 그의 학문적 이론을 배우게된다。

그의 근본적태도는 道理를 그저 이론속에서 찾는것이 아니었다。

도리는 오히려 평이하고 명백한 일상생활속에 있다는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이치를 다알고나서 행하는것도 아니요、다 행하고나서 아는것도 아니다。

앎과 행함은 서로돕고 서로 전진하는것이니 마치 사람이 길을 걸을때 두다리가 서로 번갈아 앞서며 뒤서는 것과같다하여 그 근본되는것이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는 참(誠)이라 했다。

참된 자체는 하늘의 道요、참되려 노력하는것은 사람의 道이려니와 스스로 힘써 참되려는 방법이 다름아닌「敬」이라 했다。

致知를 하는데도「敬」이 주가되며 力行을 하는데도「敬」이 주가된다。

철두철미 진실로「敬」을 다하는 방법을 알면 이치가 밝게 드러나고 마음이 안정돼 물리를 따지면 내가 비치는 거울에 그대로 나타날것이요、일을 처리하면 그것이 마음의 피로움이 되는 법이 없다。

결국 李滉의 學問및 人生觀의 밑바닥 근거는「敬」에서찾을수있다。

실로 이「敬」을 70평생을 통해 實踐躬行한 인물이 다름아닌 李滉이었다。

同德미술관、「그룹의 발표양식과 그이념」主題로

同德미술관(관장 朴容淑)은「그룹의발표양식과 그이념」이라는 주제하의 현대미술 워크숍을 열고 있다。

지난해 제1회를 개최한이래 금년이 2회째로 지난달25일부터 오는8일까지 同미술관과 同德女大、아카데미하우스등지에서 열리고있다。

同德미술관은 이와함께 이번 워크숍에 문제의식을 지닌 「서울80」「ST」「현실과발언」등 3개의 同人그룹을초청、미술관에서기획전과함께 각 그룹의 발표양식과 그이념에 관한 세미나도 열었다。

지난달 26일 열린 각그룹대표들의 강연에서 「현실과 발언」 대로 成完慶씨 (서울女大교수)는『예술가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자유」라면 이 자유는 오늘의 예술이 어떤처지에 놓여있나를 인식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상상력의 공간과 현실공간의 일치를 지향하는것、그들의 간격에 장벽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점에도 현실적으로 대응하는것、이것이 예술가의 참된 자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70년대 미술활동의 의식과 형태는 조금도 보수적인 틀을 벗어나지못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70년대 그룹활동의 생태역시 전반적으로 제도에 적응하기위한 그룹운동의 생태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말했다。

成씨는 또 자기가확보해 놓은특허권처럼 거의 10년동안이나 똑같은 유형의 작품을 「복제」해내고있는 전위미술가들이 우리주변에 있다고 전제、「사인」이라는 카리스마를 통해 미술가 문화나 돈에있어서 특권을 지닌 계층을 상대로 창작활동을 하고있다고 비난、주목을 끌었다。

조각가 沈文燮씨 우수賞
2회 헨리·무어大賞展서

美術

조각가 沈文燮씨(사진)가 일본 「조각의 숲 미술관」 주최 제2회 헨리·무어大賞展에서 우수상을 차지、상금 1백萬円 (日貨)을 수상하게됐다。

조각의 숲 미술관은 지난 79년 개관10주년을 맞아 현대조각계의 거장 헨리·무어를 기념、헨리·무어大賞展을 신설했는데 제1회展에서는 在日한국작가 李禹煥씨가 우수상을 수상한바있다。

헨리·무어大賞展 전시회는 오는4일부터 한달간 하꼬네의 야외조각장에서 열린다。

◇沈貞秀씨의 조각작품 「거울」。

沈貞秀 첫 개인전

조각가 沈貞秀씨의 개인전이 3일부터 8일까지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열린다。

沈씨는 서울美大조소과、東國大대학원출신으로 國展、현실과 발언同人展、서울조각회전등에 출품했으며 현재 檀國大강사로 재직중。沈씨 작품의 세계는 인간의 형상을 은유적인 수법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이번 전시회는 첫번째 개인전。초대일시는 3일 하오4시~7시。

李圭成 도예전

제1회 李圭成도예전이 2일부터 7일까지 미도파화랑에서 열린다。

李씨는 서울美大 응용미술과출신으로 國展、산업디자인전、土展등에 출품했으며 현梨大美大강사로 재직중。출품작은 분청사기、灰釉꽃병등。

文化短信

국민정신중흥회 오늘公開세미나

사단법인 국민정신중흥회 (회장 吳炳憲)는 2일하오 7시부터 9시반까지 종로천주교회에서 정신일도 공개세미나를 갖는다。

한국인간개발원 오늘시민강좌 개최

한국인간개발원 (원장 張萬基)은 2일하오 4시30분 종근당회의실에서 柳承國교수 (成大·동양철학)를 초청 「한국의 전통사상과 새로운 한국인상」이라는주제의 인간개발시민강좌를갖는다。

해외걸작만화

"Don't throw her back; let's hide her someplace in our boat!"

『팽개치지마、보트에 실으라구』

流星의 賦 <120>

亡兆의 日月 ⑥

李炳注 作
李友範 畵

서인들은 이이가 김효원을 두둔한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인들은 이이가 김효원을 내쫓았다고 해서 미워했다。이를 테면 협공(挾攻)을 당한 꼴이 되었다。그무렵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천하에 옳다 옳고、틀리다 그른 것이 없소。공의 근일 처사가 시비를 가리지 않고 틀리다 온전히 하려고만 하니 모두들 불만스럽게 여기오』

이에 대한 이이의 말은

『진실로 천하에 옳다 옳고、틀리다 그른 것이있소。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서로 사양한 것과 무왕(武王)과 백이(伯夷)가 서로 화합하지 않은 것은 둘다 옳은 것이요 하고 맹자(孟子)가 말씀 하시지 않았소이까。근일 심、김의 일은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요。그들 사이의 알력으로 조정을 불안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둘다 나쁜 것이요。그러나 둘다 좋은 선비이니 화해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될 것이 아니겠소』

대사간 홍성민(大司諫 洪聖民)이 이이에게『지평 이성중(持平 李誠中)을 탄핵하여 갈아치우라고 하는데 공의 생각은 어떠한가』하고 물었다。

『그것 무슨 소리요。성중에겐 허물이 없을 뿐 아니라 모가 있는 사람도 아니요。그런 사람을 단지 김효원과 가까운 사이란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떻게 될거요。효원도 공격할 수 없는 형편인데 하물며 성중을 탄핵하다니 절대로 안될말이요』

이이의 태도는 이렇게 강경했지만 홍성민은 드디어 이성중을 탄핵하고 말았다。이이는 이 이상 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한편 김효원을 두둔하는 김우옹(金宇顒)은 이이가 김효원을 아끼는 마음이 적다고 불평을했다。이이는 웃으면서 말했다。

『김효원을 보는 의견에 사등급(四等級)이 있다。하나는 효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인이란 의견이다。주로 정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또 하나의 의견은 김효원이 명예를 존중할줄아는 선비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와 내 유사한 사람들의 의견이다。또 하나는 명예를 좋아하면서 착하기도한 사람이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김공과 같은 사람의 의견일 것이다。마지막은 김효원이 흠이란 전연 없는 진군자 (眞君子)란 의견이다。이건 김효원을 둘러싼 제배 (儕輩)들의 의견이다。한 사람을 두고 이처럼 네가지 의견으로 갈라져있는데 어떻게 그가운데 좋은것만 가려 높이 쓸수가 있고、그가운데 가장나쁜 의견을 골라 그를 처단할수 있겠는가。효원은 자신의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 나라일을 하려고 했고 사감(私感)이라는 협의를 무릅쓰고 싶의결과 그친구들을 배척하고 억제하려고 해서 내가 그를 내보낸 것인데 그당시엔 내가 한짓을 좋다고 하다가 이제와선 모두 내말을 들으려고 안하니 마치 고기를 잡고나서 통발(筌)을 잃어버린 것과같은 결과가 되었구려。한데 말이통하지않는 것은 정철과 같은 성렴한 인사가 너무나 강경한 탓이다』

〈 금주의 스페샬〉

Coca Cola / Hi-C / Sprite	10온스 can	$ 5.99
Moirs Bag캔디 24"×25¢		3.45
Garbage캔디 〃		3.75
Life-savers Lolli-pops(jar) 96×10¢		6.25
Lollies(swizzle) 160×5¢		5.09
Life-savers캔디 24×30¢		4.45
Rown-Tree킹·싸이즈 바 24×59¢		9.49
넬슨 Thick바-슈프림. 져시 36×55¢		13.69
Tottee(오렌지) crispeptes 12'		11.88
Tart-N- Tiny 24'×25¢		3.85
Gobstoppers 24×25¢		3.85
YNS Cigars파이프(CHEWS) 48×10¢		2.89
Bazooka 껌 36×10¢		2.25
키스코 드링크 24×30¢		4.39
넬슨 훼밀리 바 24×99¢		14.69
Hickory스틱(B.B.Q. 스타터)		67¢

920 CALEDONIA RD. 789-7214
MR. 김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피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 카트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Spadina코너)
☎ : 977-3142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 : 30AM~6 : 00PM
●월~토 11AM~7PM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각종 가죽옷 도산매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大邱 우리는 直轄市民… 새궁지 仁川

푸짐한 開廳 慶祝행사…環境개선에 期待

光明·松炭·東豆川·太白·井州·南原 錦城·永川·金海·西歸浦도 市승격

1일을 기해 大邱·仁川市가 직할시로, 光明·松炭·東豆川·太白·井州·南原·錦城·永川·金海·西歸浦등 10개읍이 시로 승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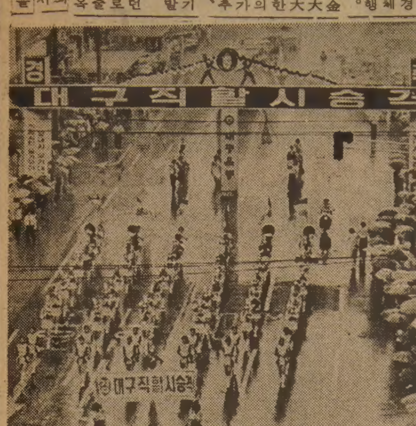
大邱·仁川직할시는 이날 상오10시 각각 南惠祐국무총리(대리참석)와 徐廷和내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거행했으며, 기타 10개시도 개청식과 함께 大邱·仁川과 마찬가지로 민속경연대회·경축예술제·시민체육대회·시가행진 축하비행등 각종 축하행사를 벌였다。

南惠祐국무총리는 이날 金聖培경북도지사가 대독한 大邱직할시 개청치사에서 "大邱시민 여러분들이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협조하는가운데 지역발전을 꾸준히 추구해 나간다면 활기찬도시, 더욱 살기좋은 새 대구가 기필코 이루어질것"이라고 말했다。

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大邱지방 시민들은 직할시로 승격되는 이날 아침부터 줄기차게 비가내리자 각종 옥외행사가 옥내로 변경개최되는등 부산한 움직임가운데서도 서우(瑞雨)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상오10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각계각층 3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가진 기념식에 이어 상오11시에는 6개구청과 11개 기업체에서 선발된 1천6백20명이 시가를 누비며 가장행렬을 벌여 구경나온 연도시민들을 기쁘게 했다。

대구시민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흠잡을데없는 도시개발, 도시행정을펴 국제도시로 가꿔야할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일 大邱직할시승격을 자축하는시가행진。악대와 꽃차들이 빗속을무릅쓰고 중심가를 누비고 있고 우산을 받쳐든 많은 시민들이 박수로환영하고 있다。【大邱=崔東亮기자찍음】

仁川직할시는 개항이래 최대의경사를맞아 곳곳에서 경축행사가 펼쳐지는등 축제분위기에 완전히 휩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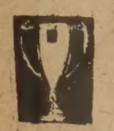
仁川시는 1일상오 인천실내체육관서 徐내무장관 金鍾會시장등 시민,학생1만여명이 모인가운데 기념식을가졌다。

기념식에 이어 인천공설운동장과 中區畓洞에이르는 가도에서는 육군군악대와 해군의장대를 선두로 시내9개국교의 고적대와 농악대 그리고 가장행렬이 시가지를 누벼 축제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내무부의 이번 직할시승격 및 시신설로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1개특별시·3개직할시·9개도·46개시·1백88개읍·1천2백53개면이 됐으며 시·도순위가①서울특별시②釜山직할시③大邱직할시④仁川직할시⑤京畿⑥江原⑦忠北⑧忠南⑨全北⑩全南⑪慶北⑫慶南⑬濟州도 순으로 조정됐다。

내무부는 大邱직할시 승격으로 大邱와 인접된 6개읍면이 편입됨으로써 주민의주택난을 해소하고 大邱시민이 부담하던 도세98억원이 모두 시수입이 됨에따라 도시환경 생활급수 대중교통등 주민들의 복지시설이 크게 개선될것으로 전망했다。

仁川직할시도 85년까지 대규모 수출공단이 조성되는등 생산적인 국제항으로 탈바꿈하여 서울과 인접한 광역생활권이 형성될것으로 기대된다。



반응없는 「老人능력銀行」

——서울시내 발족1개월…就業率 13.6%뿐

뒷받침없이 말치레만

원숙한技倆·경륜活用해야

共同作業등인색、일거리주면 잘해내

많은 사람들이 「노인문제에 신경을 쓸때가 됐다」고 주장하고있지만 번드레한 말잔치에 지나지않는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일하고싶어 하지만 일거리를 주는사람은 극히 드물다. 노인들의 취업알선을위한 첫시도로 대한노인회가 서울의 몇몇 지부에 마련했던 「노인능력은행」은 발족1개월 사이에 겨우 13·6%의 취업률을 올리는데 그쳤다. 능력은행 관리자들은 「우리사회가 힘이있고 능률이높은 젊은이들을 필요로하는것은 잘알고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오랜경험에서얻은 원숙한 기량과 경륜도 활용할줄 알아야한다」면서 사회의 인식부족이 해소되고 공공기관이 제도적으로 취업알선을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아쉽다고 입을모은다.

노인능력은행중 비교적활발한움직임을 보이고있는 東大門지부의 경우 5백30명의 능력카드비치자중 지난달동안 집보기2명、파출부1명、경리사원1명、안내원3명、목수7명、미장공3명등 모두 29명이 취업됐을뿐이다.

일시적인 취업인 공동작업의 경우까지 사회는 인색하기만하다.

城北지부 능력은행의 경우 이같은 작업이 한건도없으며 道峰은행이 1백40명의 희망자중 젓가락만들기、성냥통만들기등 2건에 40명이동원됐을뿐이며 永登浦은행은 1백49명중 堂山2洞 수성분회에서 봉투붙이기로 30명이일거리를 얻었을 뿐이다.

이처럼 저조한실적에 대해 城北노인능력은행장 高喆柱씨(68)는 「일거리를 많이주기 위해서는 공동작업이 많아야 하는데 사회가 너무 비협조적인것이 가슴아프다」고 말한다.

또 東大門지부장 金承義씨(77)는 「관내 1백여곳 기업체에 안내장을 세번씩이나 돌렸으나 거의 반응이없는상태」라면서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나 사회의반응이 아쉽다고 말했다.

개인취업현황은 더 저조하다。城北능력은행의 경우 능력별로 특수기능 (기술자)51명、행정기능 1백85명、건축기능 68명등이 있으나 취업현황은 특수기능 2명、경리1명、건축8명등에 불과하다.

능력은행에 가입된 사람이 이정도니까 가정단위의 노인들에게는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인 실정.

하지만 취업노인들은 여러가지로 성공사례를 보여주고있어 주목된다.

金鍾哲씨(36·城北區貞陵2洞135)는 「장마철에대비、지붕 수리를 젊은사람에게 시켰다가 비가 새어 다시 노인능력은행에 전화를해 노인이와서 고쳤는데 비가새지않았다」면서 노인들이 일을 꼼꼼히해 뒷탈이없다고 말한다.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못해 집을 나와 가정부로 취업한 李秉春할머니(62·江東區風納洞88의56)는 「처음에는서먹서먹했으나 지금은 친가족처럼대해 새로태어난 기분」이라고 기뻐했다.

東大門능력은행 梁泰準동업지도부장은 「경비·수위등의 일은 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기업체에서 많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永登浦능력은행의 경우 취업희망노인중 1백5명이 수위·경비직을 원하나 취업한 사람은 한사람도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60세이상 노인은 23만여명。서울시가 금년초 시내20개 노인정에서 20명씩 4백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한 노인의식 실태조사에 의하면 취업희망노인은 3백97명으로 99·2%나 되었으며 취업이유는 용돈조달이 1백98명、생활비보탬이 1백75명으로 나타났다.

또 희망직종은 노인정공동작업이 1백72명、관리업이 1백22명、단순노동 1백3명이었으며、희망월수입은 5만원이하가 1백47명、6~9만원이 1백11명、9~10만원이 1백39명으로 모두가 10만원이하면 족한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조사를 기초로 시범적으로 東大門지부등 4곳에 노인능력은행을설치、연차적으로 17개지부에 확산할 방침으로 관할 구청에서 지도관파견、개나리금고에서의 1백50만원 한도내에서의 저리융자등 행정지원을 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현재 시내 8백7개 노인정에서 공동작업을하는 노인정은 10곳 미만이며 구청의 융자를 받은곳은 한곳도 없다.

한국노총에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許榮씨(60·東大門區典農3洞65의15)는 「노인들은 많은 월급을 원하는것도 아니다. 일생을통해 익힌능력을 취미삼아 나타내려는것이다. 그런데도 구인을 요청하는 곳이없어 능력카드를 낸 노인들이 일자리가 나지않았느냐고 문의전화를 해올때 괴롭기만 하다」고 말했다. 【李在龍기자】

전문가診斷 無關心벽깨고 制度的장치를

한국노인문제연구소 朴在侃씨는 우리나라의 60세이상 노인 2백40만명중 1백50만명의 도시노인들이 「놀고있다」는 죄의식속에 살고있다」면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조했다. 朴씨에 의하면 일본의경우 東京都에는 고령자사업단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운영되고있으며、지사가 기업체장과 정기간담회를 갖고 기업체마다 5~10%씩 60세이상의 노인취업을 권장하고 있다는것。또 東京都및 행정기관이 솔선해서 노인취업을 시키고 있으며 노인들을 취업시킨 기업체에게는 면세조치까지 해주고 있다는 것。

대한노인중앙회 총무부장 金弘秀씨는 「행정관청과 기업체、능력은행이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고 노인들의 잠재능력을 인정해주는 풍토의조성이앞서야한다」고강조했다。또서울대사회복지학과 南世鎭교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문제전문기관을 만들어 맹인들에게 국한시킨 안마사의 경우처럼 노인들 전유의 업종을 지정해야한다」고 말했다。

失踪어린이 父母품에

서울桂淵군 水原고아원에있다 19일만에

지난달12일 실종되었던 黃鍾大씨(38·운전사·서울鍾路區崇仁2洞 삼일아파트 8동202호)의 2남 桂淵군(4)이 실종19일만인 1일새벽1시께부모의품으로돌아왔다。桂淵군은실종되던지난달12일하오3시께 경기始興郡부곡전철역에서 울고있다가 근처에서 공사를하고있던 금성전기 전공 이권준씨(25)에의해 발견되어 수원시청을 경유、수원시내 京畿院 고아원(원장 辛孟善)에 수용되어있다가 「유괴」로보도된후 이를본 이씨가 경찰에신고함으로써부모를다시찾게된것。桂淵군은 그간 이고아원에 계속있었지만 경찰의 수배전단이 미치지못해 그간부모를 찾을수 없었다。

한편 집에돌아온 桂淵군은 「어떤 아저씨가 장난감권총을 사주고 아빠에게 데려다준다며 차를 태웠다」고만 말하고 그이상은 기억을 하지못하고있어 자세한 실종경위가 밝혀지지 않고있다。

◇부모품에 집앞에서 놀다 실종됐던 桂淵군(4)이 19일만에 부모품에 안겨 밝게 웃고있다。

死産숨기려 데려가

新生兒증발사건 20代여인 檢擧

【釜山·大邱=聯】속보=大邱제일산부인과 미숙아 증발사건의 범인 金玉順씨(29·부산影島區蓬萊洞4街49)가 1일 새벽0시25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金씨는 「지난 5월7일 딸아이를 유산시킨후 내연의 남편 姜모씨(42)가 아기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 병원에 미숙아여서 인큐베이터에 두고왔다고 말한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같아 남의 아기를 훔치게 됐다」고 말하고 「절대 해칠생각은 없었다」고 울먹였다。

22일만에 찾아진 이아이는 30일하오 부산影島區 東소아과 건강진단에서 이아기의 체중은 2·5kg으로 생후1개월된 정상아의 표준체중4·7kg에는 훨씬 못미치나 아주 양호한 기타건강상태는 알려졌다。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0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한국일보
533-2363

ORIENTAL PALACE LTD.
뉴—서울
529 BLOOR ST. W. TORONTO, ONT.
전화 : 533—3545~6, 533~1500
스시빠—신설개업중

이스턴 후로라 무용단

이스턴 후로라— 무용단은 처음 북미를 방문하여 오리엔탈 파레스에서 첫 공연을 갖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앞으로 뉴—욕과 라스베가스에서도 공연이 약속된 이스턴 후로라에 기대를 가지면서 자신을 갖고 여러분을 모시고저 하오니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박 인 순 배

피로연, 회갑잔치, 각종 대소 파—티 예약환영

연중무휴—(일요일은 오후4시부터 10시까지)